

YWCA 목적

젊은 여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와 역사의 주로 믿으며 인류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자매임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자기 삶에 실천함으로써 정의 평화 창조질서의 보전(保全)이 이루어지는 세상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YWCA 기도문

기록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계 125개국과 한국에 YWCA를 세워주시고
 인류의 평화와 건강한 사회를 위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니 감격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땅에 정의가 강물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풍성한 생명살림으로 평등한 하나의 세상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책임으로 섬기며, 나누며, 겸손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낮은 데로 임하며, 서로 눈물을 닦아주며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Y운동체로 늘 깨어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어 좁은 길을 걸으며
 하나님나라의 새 역사를 꿈꾸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한국YWCA의 전국 회원YWCA 가족

가	다	서울 02.3705.6000	울산 052.247.3520	천안 041.575.0961
강릉 033.651.1385	대구 053.652.0070	서천 041.951.6400	원주 033.742.6090	청주 043.265.3700
거제 055.682.4950	대전 042.254.3035	성남 031.708.2503	의정부 031.853.6332	춘천 033.254.4878
경주 054.772.8141	동해 033.531.3007	세종 044.865.0872	익산 063.857.8910	충주 043.848.3240
고양 031.919.4040	마	속초 033.635.3523	인천 032.424.0524	타
광명 02.895.1966	마산 055.246.8746	수원 031.252.5111	자	통영 055.646.2547
광양 061.762.0012	목포 061.242.1611	순천 061.744.7990	전주 063.224.5501	파
광주 062.524.3511	바	아	제주 064.711.8322	파주 031.945.5998
김해 055.332.6000	부산 051.441.2221	안동 054.854.5482	제천 043.646.6009	평택 031.651.7701
나	부천 032.668.9700	안산 031.483.6536	진주 055.755.3463	포항 054.274.4444
남양주 031.577.7762	사	안양 031.455.2700	진해 055.542.0020	하
남원 063.632.7002	사천 055.833.2344	양산 055.367.1144	차	하남 031.793.7771
논산 041.736.7393	서귀포 064.762.1400	여수 061.654.2161	창원 055.283.9488	

2014년 한국YWCA 정책협의회

일시: 2014년 9월 18일(목)

장소: 마포구청 대강당

주최: (사)한국YWCA연합회



2014.10

한국YWCA

이달의 생각

바른 공동체를 이루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특집

2014년 한국YWCA 정책협의회

이달의 현장③

찾아가는 친친 와이파이즌 - 충주 중원중학교

지역운동이야기

YWCA 중견 실무자 네트워크



오늘 이렇게 탐스러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가지치기와 열매를 숙아 내는 수고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요 15:16) 라며
 그리스도인의 열매 맺는 삶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면,
 우리 안의 소비적이고 쾌락적인 잔가지들을 더 이상 두고 보아서는 안 됩니다.
 가지치기와 숙아내기를 통해 남아있는 가지들이 더 많은 영양을 공급받고
 탐스러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일상의 가지치기를 통해서만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불필요한 가지들이 남아 있는지 날마다 돌아보며
 과감히 잘라내는 지혜와 용기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사진·글 / 최병성 (목사, 환경생태운동가)

목 차

04	이달의 생각 바른 공동체를 이루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김경희
05	월례아침기도회 부끄러움의 미덕 안선희
06	연합회 사무총장 보고 10월의 한국YWCA 유성희
	특집 2014년 한국YWCA 정책협의회
08	기획 ① 탈핵 운동 1년의 성과와 과제 한영수
12	기획 ② 전국 51개 지역 회원YWCA 260여 명 노후 핵발전소 폐쇄 촉구 결의해 편집실
14	기획 ③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YWCA 결의문 한국YWCA 정책협의회 참가자
15	핵 정책과 원전 건설에 대한 예상 통합 측의 입장 예상 통합, 노후 원전 폐쇄 촉구 청원
16	성인지 통계 성별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
	칼럼
18	탈핵 경주 방폐장 김익중
20	여성 육아 예능 프로그램 속 성역할 들여다보기 전소영
22	인권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 김정린
24	청년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이야기 이예진
26	이달의 현장 ① 2014년도 제2차 1단계 실무자 교육 김수연
27	이달의 현장 ② 제4차 YWCA 돌봄정의포럼 정서연
28	이달의 현장 ③ 찾아가는 친친 와이파이존 - 충주 중원중학교 편집실
30	이달의 현장 ④ 세월호 기도와 생명평화 도보 순례 편집실
31	이달의 묵상 비움과 채움 이찬진
34	사회적기업 전국네트워크 사회적기업과 함께 하는 윤리적 소비 캠페인 장원찬
36	지역운동이야기 YWCA 중견 실무자 네트워크 최수신나
38	북한어린이돕기 유치원에서부터 '집단 교육'을 받는 북한 어린이들 김주영
40	화제의 책 동물권은 생명권 장윤재
41	연합회 소식
43	회원YWCA 소식



표지이야기

2014년 한국YWCA 정책협의회가 9월 18일 전국 51개 지역YWCA 2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탈핵 세상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으며 대형 현수막으로 퍼포먼스를 펼쳤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핵 발전 멈추게 하여 지키겠습니다!'

제50권 제8호 통권 514호 2014년 10월 16일 발행 (등록번호 라-746호) 발행 한국YWCA연합회 발행인 차경애 편집인 유성희 홍보출판위원회 문권희·백수경·신선·원영희·윤혜원·이경순 편집 박은실·이주영·전하에 발행처 서울 중구 명동길 73 한국YWCA연합회 전화 02-774-9703 팩스 02-774-9724 홈페이지 http://www.ywca.or.kr 편집디자인 (주)세아미디어 (02-730-0746) 인쇄 충무기획인쇄 (02-2263-3223)

한국YWCA연합회는 세월호의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바른 공동체를 이루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글 | 김경희 (연합회 실행위원)




2007년 창립 85주년을 맞이하여 한국YWCA는 '생명의 바람, 세상을 살리는 여성'이란 주제를 정했으며 지속적으로 섬김, 나눔, 생명 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중점운동을 기획하고 실행해 나가고 있다. 눈에 보이지도, 소유헌 수도 없는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은 지난 6년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92년 동안 한국Y를 통해 많은 결실을 맺어왔다. 올 한 해 동안 생명의 바람과 성령의 바람이 맺어 주신 결실은 위원회별로 또한 팀별로, 여러 모양으로 아름답게 무르익어 가고 있다.

2014년 중점 운동으로 매주 화요일마다 'YWCA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을 통해 생명과 창조 질서를 근원적으로 위협하는 핵의 위험을 알리는 탈핵운동을 서울 한복판 명동에서 시작하여 52개 회원Y와 함께 힘차게 이끌어 나가고 있다. 2014년 10월 14일은 제30차 불의날 캠페인을 맞이했으며, 무색, 무취, 무형의 방사능 위험에 무지한 시민들의 의식을 바꿔가고 있다. 지난 4월에는 부천시에서는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한편 우리 사회로 눈을 돌려 보면 답답함을 금할 수가 없다. 꽃다운 우리의 아들 딸들을 참담함 속에 보내고, 마음 아파하면서 기다렸던 세월호 사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은 시도조차 못한 채 한 해가 다 가고 있다. 사회구조의 전반적 개조가 절실하다는 여론이 완전히 외면당한 느낌이다.

이러한 시점에 한국Y는 지난 9월 18일 52개 회원Y 대표들, 실행위원 실무자, 2백 60여 명이 모인 가운데 2015년 중점 운동을 위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모성애와 결단의 의지가 담긴 '우리가 안고 가겠습니다'라는 내용으로 예배를 드리고 박명림 교수의 주제 강연 '세월호 이후 한국사회와 기독교 여성 운동의 과제'를 2시간 동안 경청했다.

발제를 통해 그동안 감지해온 한국의 현황을 지표를 통해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한국의 경제 발전 지표는 GDP 세계 15위, 무역 8위, 수출 7위, 외환 보유 8위, 인구 100인당 무선 인터넷 가입건수 1위, 전자 정보지수 1위 등 한국 기업과 경제의 글로벌 경쟁력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지만 이러한 양적 발전에 비해 공공지출, 복지, 평등, 자살, 출산, 산업재해, 여성 임금 격차를 포함한 사회지표, 인간지표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단과 비교는 세계 표준 수치에서 크게 벗어나 있는 실정이다.

우리 사회의 크고 작은 사건 사고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대부분의 원인은 인격과 생명과 가치를 돈으로 바꿔버리는 맘몬주의이다. 바른 공동체는 규모나 조직이 아닌 의식과 뜻과 바람이 같아야 한다고 한 발제자의 결론과 같이 이 시대의 맘몬주의를 몰아내고 우리 사회가 바른 공동체를 이루는 결실을 맺을 때까지 한국Y에 주어진 과제의 우선순위와 가치를 숙고하며 생명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힘차게 일어나길 기도해야 할 때이다. 

부끄러움의 미덕

글 | 안선희 목사 (이화여대 기독교학부, 신학대학원 교수)

요한복음 21장 7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걸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몇 달 전 독일 사회학자 울리히 벡이 내한해 강연을 했다.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란 책에서 서구사회가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위험을 체계적으로 생산하는 위험사회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내한 강연에서 울리히 벡은 이번 세월호 사건이 아주 특별한 재앙이라고 말하며 그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이 사건을 잊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고에 대한 망각은 위험하다. 그래서 잊지 않고 상기는 것이 동일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데 출발점이 될 것이다. 하지만 사건에 대한 단순한 기억과 상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난 것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상태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참사가 일어난 사회를 만드는 데 나 또한 거들었다는 사실에 대해, 참사의 직접적 원인제공자들과 마찬가지로 나도 생명보다는 이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는 사실에 대해, 나도 원칙의 고수보다는 변칙과 타협을 용통성과 유연함이라 눈감았다는 사실에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부끄러워하는 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부정의한 행위와 행태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강력한 억제장치가 되기 때문이다. 부끄러움, 부끄러워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상관없

는 감정이 아니다. 본래 부끄러움, 부끄러워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덕목이다.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 본문은 부끄러움이 신앙인의 중심적 덕목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예수님의 죽음에 낙담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고향으로 돌아가 그곳에서 그들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어부의 삶,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간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나 복음의 전파니 하는 생각은 접어두고 생활전선에 뛰어들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제자들은 함께 배를 타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 하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날이 밝을 무렵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라 바다에 오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생활인이 되어버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어 처음 제자로 부르신 그곳에서 바로 이 장면을 그대로 반복하셨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제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처음 순간을 상기시키셨다. 그렇다. 잘못된 지난날을 반성하고 새로운 길로 들어서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기억의 방법, 상기의 방법이다. 이를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자신들에게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신 것을 뒤로 한 채 소시민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모습을 반성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많은 고기를 잡게 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외침을 듣고 베드로가 보인 반응이다. 베드로는 벗은 몸에 걸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 들었다. 베드로는 신앙적 소명을 무시한 채 어부로, 소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도 부끄러워 걸옷을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든 것이다. 또한 이는 가장 많은 부끄러움을 느낀 베드로가 오히려 다른 제자들보다 더 뛰어난 신앙덕목과 더 탁월한 품성을 갖춘 인물이라는 사실을 의미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잘못된 자신에 대해 뉘우치고 부끄러워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다. 세월호 참사로 침몰한 우리 사회를, 우리 자신을 한없이 부끄러워하는 한국YWCA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기도한다. 

10월의 한국YWCA

글 | 유성희 (연합회 사무총장)



2014년 한국YWCA 정책협의회

- 기획 ① _ 탈핵 운동 1년의 성과와 과제 | 한영수
- 기획 ② _ 전국 51개 지역 회원YWCA 260여 명 노후 핵발전소 폐쇄 촉구 결의해 | 편집실
- 기획 ③ _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YWCA 결의문 | 한국YWCA 정책협의회 참가자

“하나님이 주신 생명,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여성, 그리고 어머니의 이름으로 탈핵을 외치는 YWCA 회원들의 외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여성성이나 모성은 여성운동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던 주제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름이 여성의 사고를 기존 체제 내에 머물게 하거나, 여성만이 사회의 모든 돌봄을 책임지도록 구조화되는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현실에서 모성의 담론이 여성운동의 확산을 오히려 어렵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국에서 YWCA 회원들이 외치는 탈핵의 목소리는 여성이기 때문에,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리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원하시는 '생명'의 세상이 무엇인지, 여성들, 어머니들은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9월 18일에 열린 2014년 한국YWCA 정책협의회에서 전국의 YWCA 대표들은 여성의 이름으로, 어머니의 이름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이 사회의 치유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사회적인 거담담을 위하여 물질 중심의 가치가 생명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습니다. 정책협의회의 결과, 한국YWCA는 2015년의 중점운동으로 탈핵을 지속하고, 시급한 과제인 '노후 원전 가동 중지'를 위해 서명운동을 집중적으로 진행하면서, 내년 총회를 부산에서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각 교단의 총회와 연계하여 교회가 앞장서서 탈핵운동을 하도록 촉구하고 있고, 지역에서는 교회와 협력하여 방사능 급식 조례 제정과 에너지 절약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진행되는 '불의날 캠페인'에 서울, 의정부, 청주, 부산YWCA와 김해, 진해, 창원YWCA가 참여했고, 30차를 맞은 10월 14일에는 명동 시민들과 함께 하는 'YWCA 음악회'도 가졌습니다. 생명 세상을 주신 것을 감

사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음악회에 명동의 시민들도 호응을 보내주었고, 누구보다 캠페인을 주관하는 연합회 가족들이 감동과 축복을 경험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로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0월 셋째주 한주간을 전 세계의 YWCA는 비폭력주간(Week Without Violence)으로 지킵니다. 어떤 이유로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음을 선포하며, 가정폭력, 성폭력 뿐 아니라 사회적·경제적 차별로 나타나는 폭력, 특히 분쟁지역의 여성과 어린이들의 삶을 지키는 일에 전 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평화적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YWCA도 캠페인에 동참하면서 YWCA가 운영하는 여성 관련 시설의 담당활동가 워크숍을 개최합니다. 세계 곳곳의 여성들이 인간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받고, 더 이상 고통을 당하지 않도록 돕는 일에 지지와 지원을 요청합니다.

10월 16일에는 서울YWCA가 모금을 위한 큰장날을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8도강산 바자회를 열어 지역의 특산물을 명동에서 판매하는 연합회 주관의 큰 장날이 있었습니다. 지역에서 손수 만드신 만두와 장아찌를 가득 사가던 사람들의 모습이 풍성한 가을의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10월에 많은 회원Y가 후원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하반기 한국YWCA연합회는 전국모임을 주관하거나 참여하느라 많이 분주합니다. 외부 회의에서 만나는 타 기관의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YWCA의 지역 간 연대, 전국운동은 어느 조직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영향력이 크고 '연합'과 '일치'의 노력이 지속되어 왔음을 느낍니다. 연합과 연대의 아름다운 힘으로 생명의 세상을 이루는 일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자 다짐하며, 더 큰 관심과 후원으로 Y운동에 동참해주시기 바랍니다! 



탈핵 운동 1년의 성과와 과제

글 | 한영수 (한국YWCA연합회 부회장)



제28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에 참가한 청주YWCA 회원들

YWCA 탈핵 운동 정책방향

탈핵 운동의 정책방향은 핵발전의 위험성, 부정의함, 탈핵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 핵발전소에 의존적이며 공급 중심인 에너지 정책을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하도록 하며, 생활 속 에너지 효율화와 절약과 자립 노력을 확산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핵발전소를 폐기하고 시민들이 핵 없는 생명 세상이 가능함을 인식하고 실천하도록 한다.

YWCA 탈핵 운동 목표

탈핵 운동 목표로는 첫째, 핵의 위험성과 핵발전소 안전 신화 및 핵발전소 의존정책의 허구성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둘째, 노후 핵발전소(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 및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반대한다. 셋째, 대안적 재생에너지와 수요관리 중심의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에너지 전환 정책 수립을 제안하고, 마지막으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조례 제정 등 방사능 먹거리 오염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방사능 먹거리

차단을 위한 정책 수립을 제안하는 목표를 가진다.

2014 YWCA 탈핵운동

1)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매주 화요일 정오 명동 YWCA 회관 앞에서 진행하고 있는 불의 날 캠페인의 '죽음의 불을 끄고 생명의 불을 켜자'라는 구호는 위험한 핵에너지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이 주신 정당한 생명 에너지 중심의 세상을 만들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캠페인의 내용은 핵에너지와 방사능의 위험에 대한 대시민 홍보와 더불어 고리1호기 등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9월 현재까지 28차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총 33개 회원 Y 주관, 회원Y, 연합회 실무자, 자원봉사자, 청소년 탈핵 캠페이너 등 약 650여 명이 참여했다. 노후원전 폐쇄, 신규원전 건설 반대 서명은 현재까지 약 9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국적 차원으로 전개하고 있다. CBS뉴스, 티브로드 뉴스, 씨체널 뉴스 등 방송 보도와 함께 여성신문, 국민일보, 기독교 신문 등에 다수 매체에 보도되었다.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회차별 참여 회원Y

회차	날짜	주관	회차	날짜	주관
1차	03월 11일	연합회	15차	06월 24일	서울Y
2차	03월 18일	연합회	16차	07월 01일	연합회
3차	03월 25일	연합회	17차	07월 08일	연합회
4차	04월 01일	고양Y 서울Y 순천Y	18차	07월 15일	인천Y 안동Y
5차	04월 08일	거제Y	19차	07월 22일	논산Y
6차	04월 15일	수원Y	20차	07월 29일	통영Y
7차	04월 22일	서울Y	21차	08월 05일	연합회
8차	04월 29일	수원Y	22차	08월 12일	연합회
9차	05월 13일	서울Y	23차	08월 19일	하남Y 성남Y 남양주Y
10차	05월 20일	충주Y	24차	08월 26일	제주Y
11차	05월 27일	순천Y	25차	09월 02일	인천Y
12차	06월 03일	연합회	26차	09월 09일	서울Y
13차	06월 10일	부천Y	27차	09월 16일	의정부Y
14차	06월 17일	경기지역 위원회	28차	09월 23일	청주Y

성과 첫째, 고리 1호기 폐쇄 등 중요한 탈핵 이슈를 지속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고 캠페인의 의미를 확산했으며, 둘째로는 회원Y들이 주관하여 참여하고 지역에서 실천함으로써 회원Y들의 중점운동에 대한 이해와 교육, 실천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또한 YWCA의 중점운동에 대한 실천의지가 시민사회와 탈핵운동 단체들 및 교계에 널리 알려졌다는 데에 있다.

과제 서명운동 외에 노후원전 폐쇄 등 긴급 탈핵이슈 대응을 위한 다양한 방식의 캠페인 방법이 필요하다. 회원Y에서 지역내 탈핵운동 전개를 위해 지역의 시민들을 위한 홍보방법을 개발해야 한다. 회원Y만이 아니라 탈핵운동 의지가 있는 단체 및 개인이 참여하고 주관하여 캠페인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YWCA 불의날 캠페인이 일반시민들에게 더 잘 알려질 수 있도록 대언론 홍보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제18차 불의날 캠페인에 참석하고 있는 안동YWCA와 인천YWCA

2) YWCA 움직이는 탈핵학교

연합회의 지원으로 회원Y 주관의 탈핵학교를 실시했으며, 여수Y, 목포Y, 논산Y, 천안Y, 진주Y 등 5개 회원Y가 선정되어 진행됐다. 2회의 전문강사 중심의 찾아가는 교육과 2회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했으며, 탈핵운동 담당 실무자와 자원지도자, 회원들이 적극 참가했다. 실무자와 자원지도자들이 탈핵운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역에서 탈핵이슈를 발굴하고 운동방법을 개발하여 탈핵의 논리, 필요성, 운동방법론 등을 연구·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데에 목적이 있다.

성과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자원지도자들과 회원, 지역 시민들이 탈핵의 필요성과 지역 에너지 정책 및 에너지 자립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고, 회원Y가 탈핵학교를 통해 지역 탈핵운동의 이슈와 주제를 발견하는 데 기여했다. 지원, 연대를 통해 연합회와 회원Y의 신뢰감이 강화되었다.

과제 움직이는 탈핵학교 지원Y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탈핵강사를 확보하고 지역에서 탈핵학교를 개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심화하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동영상 강의의 효율화 등 전달력을 강화할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 회원Y별 탈핵교육

- 탈핵운동가 양성교육 : 부산Y, 대구Y
- 탈핵 스터디 모임 : 고양Y
- 지역 사회 연대 탈핵학교 : 광주Y, 순천Y
- 회원 대상 정기 탈핵교육 : 남원Y, 서울Y, 수원Y, 안양Y, 의정부Y, 인천Y, 창원Y, 청주Y, 동해Y
- 탈핵자조 모임 : 논산Y



움직이는 탈핵학교 4회차 강의를 수료한 논산YWCA 회원들

3) 방사능에서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제정 운동

지역사회에서 학교급식을 비롯한 공공급식에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먹거리가 공급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생활 속 방사능의 위험을 널리 알리기 위해 연합회 차원에서 '방사능 안전 공공급식 네트워크'에 참여하며, 6차례 워크숍을 통해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방법을 논의했다. 부천YWCA는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정을 위한 '부천네트워크'를 결성, 워크숍, 공청회를 거쳐 지난 4월 전국 최초의 '진흥형 조례'를 통과시켰다.

성과 방사능 안전 급식의 실패와 필요성을 사회적으로 환기했다. 조례제정운동을 통해 지자체의 생활정치에 참여하고 시민운동단체의 정책 제안 능력을 강화했으며, 안전한 먹거리 운동에 대한 시민단체 연대력을 강화했다.

과제 조례 제정 후 이행과정 모니터링과 위원회 참여 활동이 필요하며,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개정운동과 방사능 국가기준치 하향 요구를 지속해야 한다.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정 운동에 참여하는 지역을 확대해나가는 것도 과제이다.

● 회원Y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제정 운동 현황

- 서울Y: '친환경무상급식과 안전한 먹거리 서울연대' 활동
- 고양Y: 방사능 물질차단 조례제정 연대 활동
- 의정부Y: 주민발의를 통한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제정운동 전개(의정부 방사능안전급식 네트워크)
- 청주Y: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을 위한 충북 사람들' 연대활동



부천YWCA가 주관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

4) 청소년을 위한 탈핵강사 양성 캠프

청소년들에게 '핵 없는 세상'에 대한 필요성과 가능성 등에 대해 교육하고 탈핵 관련 프로그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관련 종사자, 전현직 교사,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탈핵 강사 교육을 2박 3일의 6강 집중프로그램으로 실시했으며, 청소년 대상 탈핵 교안 작업 워크숍 형식으로 진행됐다.

성과 집중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 탈핵 전반의 주제와 이슈에 대한 이해를 넓혔으며, 청소년 대상의 탈핵 강의 교수법 등 구체적 실천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다른 청소년 활동에 활용할 시사점을 얻었다.

과제 실제 청소년 대상 탈핵교육에 적용하기 쉬운 구체화된 심화교육이 필요하다.

5) YWCA 탈핵운동 알릴 소책자

'어머니(여성)의 이름으로 탈핵을 외치다' 제작

기독교 신앙인을 중심으로 일반 시민들이 탈핵의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쉽게 이해하며, YWCA 탈핵운동의 의미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연합회 공동집필로 부산YWCA 제작, 연합회 후원으로 소책자 '어머니(여성)의 이름으로 탈핵을 외치다'를 제작하여 2014년 6월 발간, 2014년 7월 재인쇄했다. 내용은 기독교 여성의 관점에서 본 탈핵운동의 필요성, 핵발전소에 대한 Q&A, 탈핵사회로 가는 독일의 사례, 생활 속 탈핵운동 실천 방법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을 위한 탈핵 교재 '핵발전! 더이상 안돼요!'(서울YWCA 제작, 연합회 인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쉽게 이해하도록 핵의 위험과 탈핵의 필요성을 소개하는 책이다.

6) 탈핵 강의를 위한 강사용 공동교안 및 강의 대본, PPT 제작
부산YWCA가 제작해 성인, 청소년, 어린이, 기독교인 등 대상별 교육 시 활용하도록 전국 회원YWCA에 제공했다.

7) Y-틴, 대학청년Y 탈핵 운동

Y-틴은 2014년 Y-틴 중점운동으로 탈핵을 선정해 '체르노빌, 후쿠시마, 그 다음은 어디입니까?'라는 주제로 회

원Y별/지역별 강의, 캠페인, 탈핵 플래시몹 등을 진행했다. 8월 13일에서 14일까지 진행된 YWCA청년평화캠프에서는 전국 230여 명의 Y-틴, 대학청년Y 회원, 활동가들이 함께 탈핵과 평화 세상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16차 한·일YWCA 청소년협의회에서는 일본 히로시마와 이와이시마에서 '핵발전 정책의 위험성'을 주제로 양국 청소년 및 활동가, 자원지도자 총 37명이 참가해 탈핵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동부지역 Y-틴 탈핵 캠페인에 참가한 울산Y-틴 회원들

YWCA 탈핵운동 향후 방향과 과제

향후 과제로는 고리1호기 폐쇄 및 수명연장을 금지하기 위해 수명을 연장하여 7년째 가동 중인 고리1호기를 완전 폐쇄하기 위한 집중 운동 및 20년 수명 연장 계획 철회 운동을 펼쳐나가는 것이다.

둘째, 월성1호기 수명연장 금지를 위해 2014년 현재 연장을 위한 테스트 및 수순을 밟고 있는 월성1호기 폐쇄 운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셋째, 노후 원전 수명연장 금지법 제정을 촉구한다.

넷째, 신규원전 건설 반대 운동을 통해 현재 신규원전 유치 철회를 위해 주민투표를 계획하는 삼척시 주민운동을 지지,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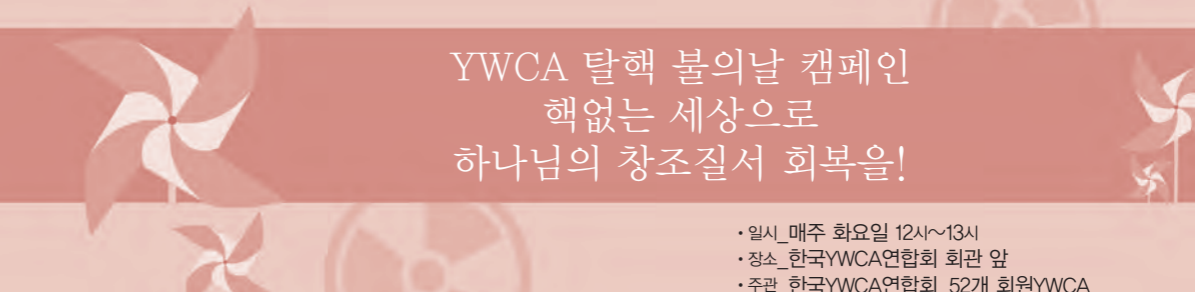
다섯째, 에너지 자립 및 에너지 정책 전환을 촉구한다. 지역 에너지 정책을 모니터링하여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여섯째, 에너지 효율화 및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을 통해 교회 및 가정의 실천운동을 모색한다.

일곱째, 생활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한 대중적 이해 확산을 통해 탈핵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한다.

여덟째, 방사능 안전급식 조례제정 운동을 확산한다.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핵없는 세상으로 하나님의 창조질서 회복을!

- 일시_매주 화요일 12시~13시
- 장소_한국YWCA연합회 회관 앞
- 주관_한국YWCA연합회, 52개 회원YWCA



전국 51개 지역 회원YWCA 260여 명 노후 핵발전소 폐쇄 촉구 결의해

글 | 편집실

2014년 한국YWCA 정책협의회가 2014년 9월 18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국 51개 지역YWCA 및 연합회에서 260여 명이 참석하여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YWCA결의문을 발표했다. 2014년 중점운동인 탈핵운동 1년의 성과와 과제를 회원 대표들과 공유하고 2015년 YWCA의 중점과제와 정책방향을 찾는 토론을 통해 2015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2014년 한국YWCA 정책협의회는 한국YWCA 대표들이 YWCA의 목적을 재확인하고 한국사회의 현실을 진단함으로써 한국YWCA의 역할과 과제를 도출하고 공유하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됐다. 이번 정책협의회에 참가한 회원들은 2014년~2015년 정책을 돌아보고 준비하는 자리를 위해 마포구청 대강당으로 모였다. 개회 예배를 통해 '우리가 안고 가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받은 Y 회원들이 마음과 손을 열어 상처 받은 이 땅, 이 민족을 살려주시기를 간구하며 5부 지역별로 마련된 각각의 색색지에 다짐 기도문을 정성스럽게 적어 냈다.

오전 주제 강연을 맡은 박명림 연세대 교수는 세월호 참사로 인해 참담했던 심정을 이야기하며 강연을 시작했다. '한국 사회의 '선 곳' '갈 길' '지금 여기'의 과제'라는 제목 아래 박 교수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우는 자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고 이것이 곧 인간적인 사회를 의



개회예배를 드리는 260여 명의 회원들

미한다고 언급했다. 세속화와 물질화가 가득한 시대에서 인간성을 회복하기란 결코 쉬운 길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여성시민단체인 한국YWCA가 사회적 책임을 회복하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정의(justice)를 통해 이 사회의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볼 것을 요청했다.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전)지표 중 기술수준이 특히 최고 수준이지만 이에 비해 세전세후 지니계수, 빈곤율, 공공지출 등의 국가(역할)지표와 비정규직 비율, 여성국회의원비율, 사회갈등지수 등의 사회(형평)지표, 또한 출산율, 자살율, 교통사고사망률 등의 인간(존엄)지표가 모두 OECD 국가 중 최하 수준인 것을 확인했다. 선진국과의 지표 비교를 통해 Y회원들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눈과 귀를 모아 경청했다.

강의 이후 35세 이하인 Y의 젊은 대표들이 강연 내용 중에서 앞으로 Y에 필요한 키워드들을 직접 선정해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통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질문을 던지며 오전 강연이 마무리되었다.

오후 시간에는 한국YWCA연합회 한영수 부회장의 '한국YWCA 중점운동, 1년의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발제가 있었다. 2014년 중점운동인 탈핵운동이 정책 방향과 목표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의 탈핵운동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결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서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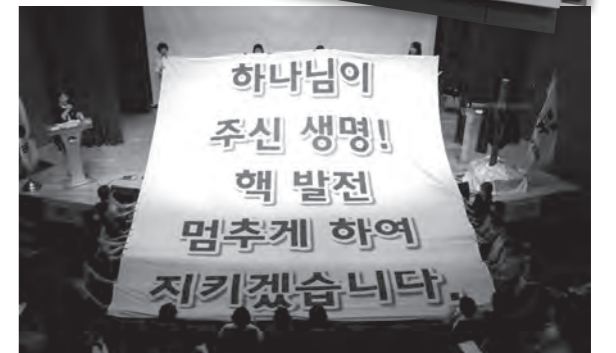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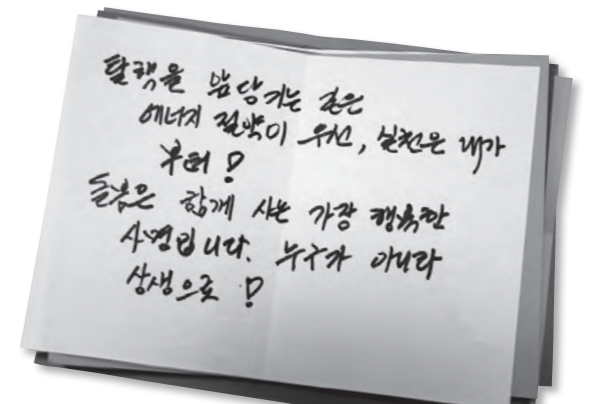
명동 연합회 앞에서 진행되는 매주 탈핵 불의날 캠페인과 더불어 회원YWCA가 전국 52개 지역에서 진행되는 캠페인과 탈핵 운동보고를 통해 Y의 회원들이 마음과 열정을 다해 탈핵운동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YWCA 움직이는 탈핵학교, 방사능에서 안전한 공공급식 조례제정 운동, 청소년을 위한 탈핵강사 양성 캠프, 탈핵소책자 제작, Y-틴과 대학청년Y의 탈핵 운동 등의 성과와 과제 또한 다각적 방향에서 탈핵운동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서는 무작위로 조를 추첨해 4명씩 모여 한 시간여 동안 '2015년도 과제와 정책 방향 찾기'를 심도 깊게 고민했으며 뒤쪽 벽에 꾸민 생명의 바람 판에 결과를 적어 붙였다. '탈핵' 관련 키워드가 1위, 청(소)년운동이 2위였으며 평화통일운동, 성인지, 공동체 및 여성회복, 저출산 고령화 등이 순서대로 주를 이뤘다.

토론 소감을 나누는 자리에서 논산Y 이미영 이사는 "Y에서 이사로 10년간 활동하면서 여성이 바로서야 사회와 가정이 바로설 수 있다고 체감했다. 원전문제 역시 교육과 홍보를 통해 지역의 여성들이 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주Y 조미영 국장은 "오늘 정책협의회를 통해 YWCA가 원전폐쇄를 위해 어떻게 그리고 무엇을 실천해 나가야 할지 돌아보며 Y의 탈핵운동이 실천적인 운동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Y 대학청년Y 윤소라 회장은 "대학청년Y 회장으로 서 할 일들이 많아 힘들었지만 정책협의회에 와서 처음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했다. Y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내년에는 대학청년Y 회원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소감을 나눠 많은 박수를 받았다. 연합회 장미란 실행위원은 "오전 강연의 내용처럼 우리의 책임을 남에게 돌리지 말고 Y운동을 해야 한다. 또한 회원Y들끼리 중점운동의 내용과 상황들을 앞으로도 서로 공유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더 활발히 현장에서 움직이는 Y가 되길 기대한다"고 마무리했다.

이후 한국YWCA연합회 차경애 회장과 젊은 대표로 신



탈핵 세상을 향한 다짐을 선포하는 퍼포먼스

보미 실행위원이 함께 수명 끝난 핵발전소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폐쇄하는 일이 가장 절박한 과제임을 인식하고 결의문을 발표했다. 결의문에서는 '수명 끝난 핵발전소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며, '노후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재난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과 저소비,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했다. 한편 시민 실천으로는 '에너지 정책 모니터링,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등의 시민참여 운동을 전개'하고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핵발전 에너지가 아닌 재생 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활발히 실시'하며,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핵 발전 멈추게 하여 지키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뒤에서 앞으로 전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며 2014년~2015년 YWCA 중점운동을 내면화하고 회원YWCA가 활동을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다. YWCA의 목적과 이 시대의 궁정적이고도 발전적인 시대 변혁을 향한 YWCA의 사명을 다시금 새겨보는 자리였다. 



고리1호기, 월성1호기 노후 핵발전소 폐쇄를 위한 YWCA 결의문

온 국민에게 엄청난 충격과 슬픔을 몰고 온 세월호 참사는 여전히 그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채,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돈과 물질 송배로 잃어버린 생명의 가치를 어떻게 회복시켜야 할 것인지에 대한 중대한 물음을 우리 앞에 내놓고 있다.

핵발전소 세계 1위인 우리나라는 확률적으로도 스리마일, 체르노빌, 후쿠시마 다음으로 엄청난 규모의 핵참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꼽히고 있다. 고리1호기는 이미 30년의 설계수명을 다 하고도 7년이나 연장하여 가동하고 있으며, 2012년 11월 설계수명인 30년을 채워 가동을 멈추고 있는 월성1호기는 현재 계속운전을 신청한 상태이다. 지난 9월 12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당초 규정된 심사 기간인 18개월을 훌쩍 넘겨 56개월이나 조사를 했지만 그동안의 경과보고나 자료공개 없이 월성1호기는 '기술적으로 안전성에 별 문제가 없다'는 보고를 내놓고 수명 연장 수순을 밟고 있다.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전체 생산량의 1.5% 정도에 불과하다. 따라서 피크 시의 전력은 수요 조절과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음에도, 정부와 한수원은 '전기가 모자란다'는 이유로 수명 끝난 핵발전소를 더 연장해 가동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수명이 끝난 노후 핵발전소들의 핵심 부품들은 원전비리로 인해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가짜부품들로 운행되고 있으며, 지금도 빈번하게 고장과 사고가 일어나고 있지만, 이러한 사실은 계속 은폐되어 오고 있다. '핵발전소는 안전하다'는 신화는 이미 붕괴되었다. 우리는 세월호 이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것은 수명 끝난 핵발전소라고 인식한다. 핵발전소로부터 온 전기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서 누리는 편리함 때문에 우리와 다음세대의 안전과 생명을 바꿀 수는 없다. 생명보다 돈, 안전보다 경제성을 앞세운 논리로 수많은 이들의 고통과 희생을 불러올 수 있는 수명 끝난 노후 핵발전소는 반드시 폐쇄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 창조질서 보전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 YWCA 회원들은,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가져올 수 있는 노후 핵발전소 고리1호기, 월성1호기를 폐쇄하는 일이 우리 앞에 놓여진 가장 절박한 과제를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우리의 요구>

하나, 수명 끝난 핵발전소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를 촉구한다.

하나, '노후원전 수명 연장 금지법' 제정을 요구한다.

하나, 노후 핵발전소 사고에 대한 재난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과 저소비, 재생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도록 촉구한다.

<우리의 실천>

하나, 에너지 정책 모니터링, 에너지 효율화와 에너지 절약 등의 시민 참여 운동을 전개한다.

하나, 유아,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핵발전 에너지가 아닌 재생 에너지에 대한 교육을 활발히 실시한다.

하나, 일상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2014년 9월 18일
한국YWCA 정책협의회 참가자 일동

예장 통합, 노후 원전 폐쇄 촉구 청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는 지난 9월 22일부터 25일 까지 전국 65개 노회, 목사 장로 총대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99회 정기총회를 서울 소망교회에서 개최했다. 상정된 현의안 중 눈여겨볼 것은 충청노회, 남원노회, 부산동노회 등 10개나 되는 노회가 노후 원자력발전소가 창조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노후 원전의 재가동 중단과 폐쇄를 촉구하는 내용의 현의안을 상정했다는 점이다. 현의안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충청노회, 남원노회, 부산동노회, 대구서남노회, 경서노회, 평북노회의 제안

우리는 1986년 구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의 대참사와 2011년 3월 11일 일본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로 인한 대재앙을 목도하였다. 부산, 울산, 대구, 포항 등 한국 동부지역은 노후한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를 비롯하여 핵발전소 밀집지역이다. 현재는 우리나라에는 23기의 핵발전소가 있으며, 건설 중인 5기와 계획 중인 6기를 합하여 앞으로 34기의 핵발전소를 갖게 된다. 고리원전 1기는 2008년에 그 수명을 다하여 폐기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가동하고 있으며 최근 고장으로 빈번하게 가동이 중단되는 형편이다. 총회적 입장에서 노후발전소 즉각 폐쇄와 신규 핵발전소 계획 중단 및 대체에너지 개발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여 정부와 핵발전소 인근 자치 단체장에게 핵정책 이행 계획을 수립하도록 해 주기 바란다.


진주남노회, 부산노회, 부산남노회, 포항노회의 제안

부산 시민들의 61.5%가 고리1호기의 폐쇄를 희망하고 있고, 절반 이상이 환경세를 부담해서라도 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수명 다한 핵발전소를 계속 운영하는 한 한국사회는 세월호처럼 침몰하여 국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을 안고 사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생명이 귀하다는 말씀에 따라 고리1호기와 월

성1호기의 폐쇄를 촉구하여야 한다. 고리와 월성의 원전을 폐쇄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한국교회는 하늘의 불을 땅에서 켜면 안 된다(요 38:31~33)는 것을, 원전기업과 무한한 경제성장의 탐욕을 위해 인간 생명을 희생시키는 것은 맘몬 우상숭배임을 자각하면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한국에서 살게 하기 위하여 고리와 월성의 원전폐쇄를 촉구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가 뜻과 지혜를 모아서 신재생 혹은 자연 에너지 개발 및 지속가능한 경제를 모색하는 길로 나아가기를 촉구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현의안을 받은 총회 사회봉사부에서는 노후 핵발전소와 관련해 심각한 사명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대처해왔음을 밝혔다. 예장 통합 측은 2012년인 제 97회기에는 노후 핵발전소 폐쇄에 관한 총회장 성명서를 발표했다. 2013년인 98회기에는 '핵 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 연대'와 연합하여 고리 원전폐쇄 기도회를 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등과 협력하여 고리 1호기 현장 방문하여 원자력 발전기의 수명 연장을 반대하며 폐쇄 조치를 위한 활동을 지속해 왔다. 이뿐 아니라 총회 환경보전 위원회를 통해 대체에너지 개발과 사용에 대한 목회지침을 마련하여 실시하였고, 태양광발전 협동조합의 조직을 위해 힘써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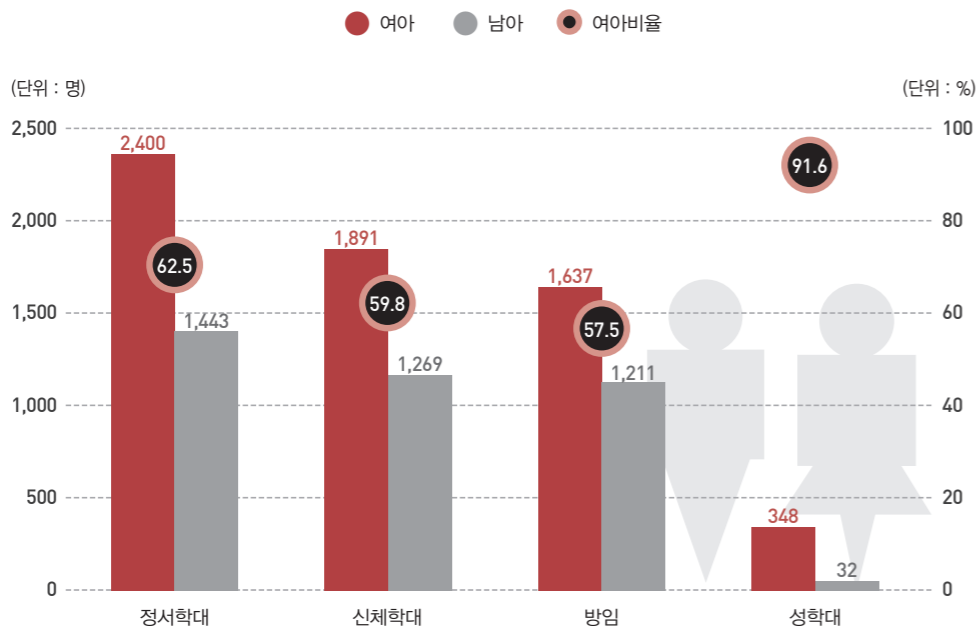
올해 99회기에는 환경보전위원회를 통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수명 다한 원전의 폐쇄와 종합적인 정부의 핵정책에 대한 비판과 대안 제시를 실시하고 핵그린 및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협력하여 에큐메니칼 차원에서 연대하여 대응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한국YWCA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핵그린 등과 연대하여 고리1호기 폐쇄 기도회와 현장방문에 함께 해왔다. 이제 YWCA탈핵 운동은 교계와의 협력체계와 연대를 강화하여 온 교회와 성도가 함께하는 운동으로 대체에너지 개발과 실천을 확산시켜 갈 것이다. (글: 편집실) 

아동학대 모든 유형에서 여아의 비율 높아 '성 학대' 피해 아동 중 91.6%가 여아

Column
컬럼

성별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 아동 (2013)



2013년 아동학대 유형별 피해아동을 성별로 살펴본 결과(유형별 중복 포함)입니다. '정서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은 여아 2,400명, 남아 1,443명, '신체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은 여아 1,891명, 남아 1,269명, '방임'을 당한 피해아동은 여아 1,637명, 남아 1,211명, '성 학대'를 당한 피해아동은 여아 348명, 남아 32명입니다. 아동학대 모든 유형에서 여아의 수가 남아의 수보다 많았습니다. 특히, '성학대'를 당한 피해아동 중 여아의 비율은 91.6%로 남아 비율 8.4%에 비해 매우 높았고, 유형별 여아 비율은 '정서학대' 62.5%, '신체학대' 59.8%, 방임 57.5% 순이었습니다.

출처/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 통계정보 시스템(GSS)

- 탈핵 _ 경주 방폐장 | 김익중
- 여성 _ 육아 예능 프로그램 속 성역할 들여다보기 | 전소영
- 인권 _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 | 김정린
- 청년 _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이야기 | 이예진

암반이 약하고 지하수 많아 지질학적으로 부적합해

글 | 김익중 (동국대 교수, 경주환경운동연합 연구위원장)

- 제 1 편 _ 후쿠시마 핵사고의 영향
- 제 2 편 _ 핵사고의 원인
- 제 3 편 _ 원자력은 사양산업이다
- 제 4 편 _ 원자력을 대신하는
재생가능 에너지
- 제 5 편 _ 기준치 이하라서 안전하다?
- 제 6 편 _ 한국인의 피폭경로
- 제 7 편 _ 고준위(高準位) 핵폐기물
- 제 8 편 _ **경주 방폐장**
- 제 9 편 _ 핵 재처리
- 제 10 편 _ 핵발전의 대안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 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발생되며, 폐기물의 분류기준에 따라 중저준위와 고준위로 나누어진다. 중저준위 폐기물은 원전에서 사용한 작업복, 덧신, 기기교체 부품 등과 산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들로 이루어지며, 고준위 폐기물은 사용후핵연료만 해당된다.

원전에서 발생된 방사성 폐기물은 각 원전의 임시저장고에 저장하고 있으며, 병원,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원자력발전기술원 임시 저장시설에서 저장하고 있다. 이러한 방사성 폐기물을 영구 처분하기 위하여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에서 경주시 양북면 일대에 동굴처분방식의 중저준위 방폐장인 월성원자력환경관리센터를 2012년 12월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다.

2005년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장(이하 방폐장)은 경주로 결정되었다. 3,000억원의 지원금과 한국수력원자력 본사를 경주로 주겠다는 약속이 경주시민들을 설득했다고 본다. 정작 중요한 안전성 문제는 투표당시 이슈가 되지도 않았었다. 경주시민들이 들었던 말은 '아주 좋은 부지이다. 안전성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 뿐이었다. 그러나 정작 공사가 시작되니 부지의 문제점이 나타났고, 이로 인하여 공사기간이 연장되기에 이르렀다. 공사기간이 3차례나 연장된 이유가 바로



경주 방폐장 공사현장의 모습
지하수가 콘크리트를 뚫고 동굴 내부로 들어오고 있다. 이 지하수를 모아서 오른쪽 아래에 보이는 관을 통하여 밖으로 퍼내고 있다. 암반이 불안하고 지하수가 특별히 많은 곳에 방폐장을 선택한 것이 위험성의 근본적인 이유이다.

부지의 문제점에 있었던 것이다. 경주 방폐장 부지는 거의 암반이 없는 상태라고 봐야 한다. 게다가 지하수가 특별히 많이 나오는 장소이다. 이로 인하여 공사도 하기 어려웠고, 공사기간도 더 길어졌던 것이다. 하루에 약 5,000톤의 물을 퍼내가면서 공사를 진행시켰다. 또한 무너짐 방지를 위해서 굴을 파기 전에 콘크리트로 주변을 굳혀가면서 파내려갔던 것이다.

부지 결정 이후 거의 10년이라는 긴 기간이 지나서야 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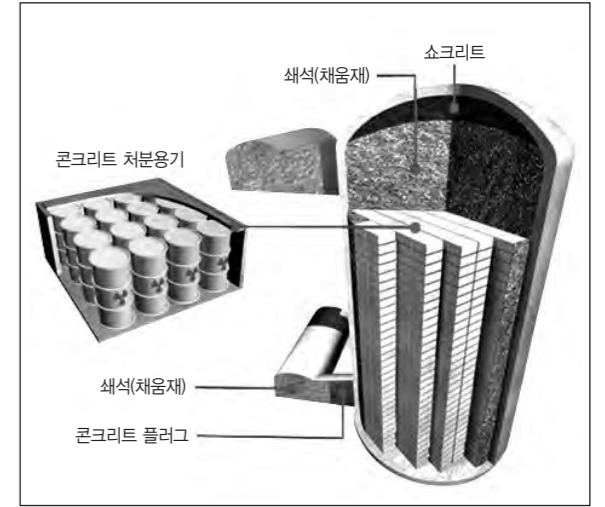
6월 말에 공사가 마무리 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지금부터이다. 완공된 현재도 지하수를 하루에 1,200톤씩 퍼내고 있다. 주변의 지하수를 완벽하게 막을 방도가 없었기 때문에 방폐장 진입동굴로 지하수를 모아서 밖으로 퍼내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렇게 완공된 경주 방폐장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일까?

방사성 폐기물을 관리하는 원자력환경공단은 안전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방폐장 주변은 지하수가 너무나 풍부하고, 이 지하수를 막을 방법은 콘크리트 뿐이다. 만일 콘크리트에 금이 가면 주변의 지하수가 방폐장 내부로 들어올 것이 뻔한 일이다. 이렇게 지하수가 방폐장에 차게 되면 이 지하수는 방사능에 오염된다. 다른 균열이 발생하면 이 오염수는 주변 환경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현재 방폐장 안전성에 관한 판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언제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할 것인가?'인 것이다.

이에 대해서 원자력환경공단은 필자에게 '방폐장 콘크리트는 1,400년 간 균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의 상식은 그렇지 않다. 온 국민이 콘크리트에 언제 균열이 발생하는지 알고 있다. 300년간 방사능 물질을 가두어야 하는 중저준위 방폐장에 과연 300년간 균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필자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을 책임지는 원자력안전기술원에 정보공개를 요청하여 질문하였고, 이에 대한 답을 받을 수 있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주 방폐장은 지하수에 잠긴다.
2.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 지하수는 방폐장 내부로 들어간다.
3. 그렇게 되면 방사능 물질의 누출이 시작된다.
4. 경주 방폐장은 처분시설이므로 보수공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한번 새면 다 샌다)
5. 그래도 기준치 이하가 될 것이므로 경주 방폐장은 안전하다.



중저준위 방폐장 처분시설 개념도
(출처: 경주시월성원전 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
방폐장의 핵심은 방사성 폐기물들이 보관될 6개의 사일로. 해수면 기준으로 지하 130~80m 사이에 원통형 수직동굴로 건설된다. 직경 23m, 높이 50m 규모에 달한다. 20층 빌딩과 맞먹는 크기의 수직 동굴을 지하에 세우는 셈이다.

6. 이 기준치는 방폐장에서 방사능 물질이 동해바다로 이동하여, 오염된 수산물의 섭취에 의한 국민의 피폭량으로 설정되어 있다.

원자력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은 그러나 언제 방폐장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할지 답을 하지 않고 있다. 균열발생이 300년 이후라면 경주 방폐장은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300년 이전이라면 방폐장은 위험하다고 봐야할 것이다.

필자는 이와 같은 결과를 살펴본 후 경주 방폐장에서는 100% 확률로 방사능 물질이 새나온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보수공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방사능 물질이 다 새나올 때까지 누출은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주 방폐장은 이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육아 예능 프로그램 속 성역할 들여다보기

글 | 전소영 (서울YWCA 미디어모니터회 회원, 좋은TV 프로그램 상심사위원)

성역할 고정관념 완화

요즘 아빠들이 달라졌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며 전근대적인 아버지에서 친근하고 다정한 ‘프렌들리 대디(Friendly Daddy)’가 대체다. 최근 TV 속에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남성들이 많이 등장하며 더욱 그 바람이 거세지고 있다. 아빠와 아이가 뿔에서 하나되어 뿔굴고, 삼둥이가 아빠의 가슴에 안겨 성화 봉송 주자가 되며 따뜻한 부성애와 가슴으로 흠뻑 사랑을 받는 모습은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자녀 양육에 대한 달라진 교육관과 정체성을 갖게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를 통해 아빠 역할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룸메이트 (출처:SBS)

여성이 가정에서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는 기존의 가정 내의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완화된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슈퍼맨이 돌아왔다’(KBS2)와 ‘룸메이트’(SBS)에서는 남성이 일상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함으로써 육아와 가사가 여성들만의 전유물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이 남성의 빈번한 등장은 성역할 고정관념을 약화시키고 다양한 남성상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보여줌으로써 성역할 고정관념을 탈피하는 것임과 동시에 주체적인 여성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도 함께 그려지고 있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KBS2)에서 도경원이 아내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는 모습과 도경원이 밥을 먹다가도 아이의 상태를 살펴보는 장면이 등장했는데, 의도적으로 연출한 장면이 아닌 자연스러운 일상의 모습으로 아이를 돌보는 아내를 위한 남편의 역할을 보여주었다. 이는 육아가 주로 엄마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전통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엄마와 아빠가 공동으로 육아를 담당하는 것임을 보여주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사랑이 아빠 추성훈의 경우 일상적이고 자연스럽게 집안일을 하는 모습이 그려져 가사와 육아를 부모가 함께하는 모습이 긍정적으로 비춰졌으며, 또 다른 가족인 강혜정·타블로 부부의 경우, 아내가 일하는 곳을 타블로와 딸 하루가 찾아가는데 이는 여성의 사회활동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며 타블로가 아내를 위해 도시락을 준비해가는 모습에서 남녀의 성역할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모습들이 그려지고 있어 매우 고무적이었다.

‘룸메이트’(SBS)의 경우 룸메이트의 출연자들이 함께 집을 공유하고 있는 루비네집의 아침 광경을 보여주었는데 가족들을 위해 익숙하게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전통적인 가부장적 아버지의 모습이 아닌 가사를 공유하고 가족을 보살피는 현대적인 가정의 모습이 세밀하게 묘사되어 긍정적이었다.

가정 내 성역할 고정관념, 가사와 육아는 여성의 몫?

남성육아 프로그램의 등장으로 가정 내에 가사와 육아에 대한 역할을 함께 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가정 내 성평등 문화를 그려내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반면, 리얼 프로그램의 특성상 그들의 일상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면서, 성역할 고정관념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도 많았다.

‘오! 마이 베이비’(SBS)에서 손준호의 할아버지를 뵈러 간 자리에서 손준호의 누나인 고모는 주안이 엄마인 김소현이 발일을 하고 저녁도 차리는 것을 당연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며느리가 시댁에서는 항상 일을 맡아 해야 한다는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 아쉬웠다.



오마이베이비 (출처:SBS)

사회적 산물인 성역할 고정관념 강화

모니터링을 실시한 총 63편의 프로그램 중 남성 출연자로만 구성된 프로그램이 11편으로 전체 중 83%를 차지하였다. 남성 예능 프로그램은 남성들 간의 토크, 게임과 같은 대결 구도로 구성되거나 여성 게스트가 출연할 경우, 여성의 외모를 칭찬하고, 화제거리로 삼는 장면이 많은 반면, 여성 중심의 예능 프로그램은 미용과 성형과 같은 외모 가꾸기에 집중되거나 가족 간의 갈등을 다루는 내용을 구성되고 있다.




아빠 어디가 (출처:MBC)

‘아빠 어디가’(MBC)에서 안정환의 경우 아들 리환이에 대해 말하면서 “리환이는 아직 어려서 성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고 여성스러운 면이 있는데 어떤 상황에서든 남자답기를 바란다”라고 하였고 자막으로 ‘강한 남자로 키우고 싶은 집념의 아빠’라고 기재되었다. 남성 육아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의 역할을 고려할 때 성별 고정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등장하여 아쉬움을 남겼다.

성평등 감수성을 담아내려는 제작진의 노력 필요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육아를 소재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서 남녀 공동육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는 면은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기존의 성 고정관념을 문제삼거나 이를 탈피하고자 하는 노력은 두드러지지 않았다. 성 고정관념에서 탈피하는 데에는 출연자들보다도 제작진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 프로그램의 기획의도에 기존의 편견과 고정관념에 기대어 재미와 흥미를 찾는 태도는 성평등 의식을 지향하는 사회적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신선함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현실적으로 프로그램 제작진에게 성평등 의식을 담아낼 수 있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음부즈맨 프로그램의 비평에 힘을 싣고, 시청자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미디어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고려한 책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노력도 필요하다. 

2014년 서울YWCA 미디어모니터회는 한국양성평등진흥원과 함께 TV와 인터넷, 광고 등 다양한 장르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미디어 교육 등 다각적인 성평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사를 존중하는 데서 시작

글 | 김정린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실, 인권담당관)

아동이 동등한 권리를 누리도록

만 18세 이하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이 1990년에 발효되어 올해로 2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크게 생존할 권리, 보호받을 권리, 발달할 권리, 참여할 권리를 골자로 하고 있으며, 반(反)차별, 아동 최선의 이익 우선, 아동 의사 존중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유엔인권협약 중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으로, 2014년 9월말 현재, 소말리아, 남수단, 미국을 제외한 세계 194개국이 비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은 아동권과 관련하여 전세계적으로 심각한 2가지 이슈에 관하여 선택의정서를 채택했는데, 하나는 ‘아동의 무력충돌 참여에 관한 아동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이고, 또 다른 하나는 ‘아동매매, 성매매 및 아동 음란물의 금지에 관한 선택의정서’입니다. 대한민국은 본 협약 및 두 선택의정서를 비준하여 당사국이 되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모든 인권의 문제를 어린이들에 상황과 발달 정도에 따라 눈높이를 맞춰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동권리협약은 거의 모든 인권의 문제를 망라한 매우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협약을 관통하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꼽으라면, ‘아동의 의사 존중(right to be heard)’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원칙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일상에서는 참 쉽게 간과되거나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이 궁극적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동도 하나의 인간으로서 동등한 인권을 가지고 있으며, 어린이들이 그 동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과 관련한 많은 인권문제들을 이 두 가지 원칙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쟁점을 보다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고, 또한 어려워 보이는 문제들도 생각보다 쉽게 그리고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학생 두발 - 머리 길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일할 때, 학교에서 학생 머리 모양 및 교복착용 등 학교생활규칙과 관련하여 전국의 많은 중고등학생들로부터 많은 진정사건들이 접수되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접할 때는, 학생들이 머리 길이를 제한하는데 불만이 많은가보다 생각했었습니다만, 진정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학생들이 주장하는 주된 내용은 머리 길이를 길게 하자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도 지나치게 길거나 단정치 못한 머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머리나 교복, 그 외에 학생들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결정을 내릴 때, 왜 우리들의 의견을 듣지 않는가? 일부 학생(대개는 학생회 간부)들의 의견을 전체 학생들의 의견인 양 생각하느냐?

일방적으로 규칙을 정하고, 이를 어겼다고 선생님이 강제로 학생들의 머리를 자르는 게 옳으냐?’였습니다. 즉, 생활 규칙을 만드는데 그것으로 가장 영향을 받게 될 학생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교사들이 중심이 되어 정하는 게 적절한지를 따지는 것이었습니다.

조사를 위해 사건 당사자들인 학생들과 교장을 포함한 교사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한편으로는 참 흥미롭고 놀라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딱딱한 벽을 대하는 답답함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이 우리 기성세대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숙한 사고를 하고 있음을 깨달았고, 저 역시 학생들을 무조건 어리다고 여겼던 것을 많이 반성했는데요. 학생들은 오히려 어른들에 비해 자신과 타인에 대해 훨씬 객관적이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줄 알고, 옳은 일은 옳다고 옳지 않은 일은 옳지 않다고 바라보고 스스로 감정이 표현할 줄 압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참 똑똑하고 현명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타협을 모르는 이 친구들의 시선이 두렵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학교 선생님들은, 특히 교장 선생님들처럼 책임이 커질수록 고등학생이나 유치원생이나 별다를 바 없이 여기고 계시는 것을 종종 느낄 수 있습니다. ‘애들이 무슨 생각이 있어요. 그저 머리 기르고 싶고, 교복치마 짧게 입고 싶은 겁니다. 애들이 하자는 대로 합니까? 아직 미숙한 아이들을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사회가 잘 이끌어주세요.’

유엔아동권리협약도 어린이들의 판단능력이나 결정 권한을 성인과 동등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어린이들의 발달 정도에 맞는 수준의 판단 능력과 결정권을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발달 수준에 따라 부득이 보호자나 국가가 아동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 아동의 이익을 최선으로 가장 먼저 고려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사건을 조사하다가 종종 학생들로부터 진정을 취하하겠다는 연락을 받습니다. 부모님이 전화해서 진정을 취하해달라고 하기도 하는데, 취하하는 이유가 뭐냐고 물으면 얼버무리기도 하고 또는, ‘애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진정이니 조사나 하냐? 국가기관이 그렇게 할 일이 없냐?’는 편지를 주기도 합니다. 진정 취하 확인을 위해 학생들과

통화를 해보면, 학교에서 학부모들에게 연락해서 취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암묵적인 압박이 있었음을 쉽게 알게 됩니다.

인권을 존중받는 어린이가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앞의 사례에서 당초에 학교가 생활규칙을 정할 때, 학생들의 의견을 묻고 이를 반영하여 생활규칙을 정하거나 학생들이 교사와 학부모의 조언을 구해가며 서로 토론하며 스스로 생활규칙을 정하였다면 일어나지도 않았을 일입니다. 그랬다면 학생들은 자기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규칙을 결정하는 데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배우게 되고, 권리 행사를 통해서 규칙이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해진 규칙을 따른 책임을 강하게 느끼고 잘 지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민주적 절차에 따른 법과 제도의 수립, 당사자 참여 등 민주주의 운영 원리, 준법정신 등을 실습을 통해 체득할 수 있는데요.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힘 있는 사람들(선생님)이 법이나 제도를 만들어 다수의 이해 당사자(학생들)에게 생각을 강제하게 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더 나아가, 진정서를 냈다고 불이익을 주고 또 학생을 압박하여 진정을 취하게 하면서 이 친구들이 어른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부정의하고 불합리한 일을 지적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동인권은, 교육을 받을 권리, 신체의 안전과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인권 각 항목들이 충분히 보호, 존중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아동들은 자신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되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인권, 민주주의, 세계에 대한 의식과 관점을 형성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민주주의 의식, 세계의식의 수준을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아동인권의 중요성과 심각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인권을 존중받는 어린이가 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절차를 존중할 줄 알게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한 이야기



글 | 이예진 (서울Y 대학청년Y)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 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 김춘수의 '꽃' 중에서

연애편지어나 종종 등장할 것 같은 이 시의 구절은, 사실은 '명명(이름을 붙여주는 행위)'을 통해 인식되는 존재에 대한 고찰을 담은 시이다. 때로는 형태도 없고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는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본다. 거울이 보여주는 내 모습이 상의 '나'에 대해서, 타인의 짐작보다 복잡한 '나'. 실은 알고 보면 너무도 '특별한', 보이지 않는 '나'의 많은 의미는 누가, 어떻게 '명명'해 줄 수 있을까?

올곧게 원하는 것들을 하기엔 너무도 터프한 세상이다. 아등바등 수능 성적표에 쿵 하고 등급을 받아, 대학을 간 것이 엇그제인데, 이젠 다시 이력서라는 '성적표'에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것을 적어 내야만 하는 그런 세상. 토익은 800점이 넘어야 하고 해외연수는 기본이었는데, 그 어느 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준비되더라도 마음의 불안감은 여전히 가시지 않는다. 세상이 너무나 무겁게 느껴진다. 비단 나만이 느끼는 감정은 아닐 것이다.

세상은 경쟁의 연속이라는 말이 정말 맞나 보다. 수능이라는 하나의 허들을 넘으니, 이젠 취직이 눈앞이고, 취직을 해서도 이러한 경쟁은 절대 가실 것 같지 않다. 수능이 그러했듯 취직이 내 경쟁과 목표의 끝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가끔은 세상 속에서 너무도 작은 내 존재에 바스라져 버릴 것 같은 무거움이 느껴진다. 바쁘게 일상을 보내고 피로에 지쳐서 집에 가는 그 길목에서 드는 생각.

'지금 나는 잘 하고 있는 걸까?'

한 명의 취준생으로서, 현재 나는 작은 회사에서 정확히 내가 원하는 분야의 인턴으로 근무 중이다. 이곳에 들어 오기 전 이력서에 한 줄 써야지 하며 참가했던 대기업의 한 대외활동에서 나는 '마케팅'이라는 분야를 만나게 되었다.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는 광고, 제품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 '브랜드'와 같이 하나의 가치를 창조해내는 이 일의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글을 쓰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음을 느꼈다.


1년 동안 이 분야를 조금이라도 더 알기 위해 매진했다. 밤을 새며 공모전에 나가기도 했고, 조금이라도 알아낸 것들을 미래의 새싹들에게 알려주고도 싶어 서울YWCA 금융동아리 '핑크머니'에서 활동했다. 금융강의도 기획해보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자기계발과 브랜딩 노하우를 전해 주기도 했다. 지금은 비록 다음 기수에게 자리를 넘겨주고 현역에서 물러났지만, 강사로서 학생들 앞에 섰던 짜릿한 기억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아직 직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시키는 광고를 만들지는 못한다. 눈물 나는 광고는 없고, 회사는 야근의 연속이고, 힘이 들고, 아직 나의 이력서에 채워야 할 것이 많지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엇을 해도 힘들지 않다.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한 발짝을 지금도 난 내딛고 있기 때문이다. 꿈을 위한 고행은 즐겁다. 나를 완성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무엇 하나 무의미한 것이란 없다.

당신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내 안에 다른 무엇이 더 있을지 나는 차마다 알지 못한다. 하지만 한 번쯤은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다. 당신 안에서 당신이 찾지 못했으나 분명 '존재'하고 있는 꿈들을 말이다. 너무 바쁜 삶에서 거

의 잊어가고 있던 당신만의 소중한 꿈을 이제 슬쩍, 치열하지만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는 당신의 삶에 집어 넣어주면 어떨까. '꿈이 있습니다.'라는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지만 그렇기에 무한한 가능성이 충분한 모두의 청춘에 그야말로 어울리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남들과 같은 시험을 보고, 남들보다 높은 점수를 이력서에 채워 넣어서라도 기업의 관계자를 만나 면접을 보아야만 하는 이유를 찾아냈으면 좋겠다. 매일 아침 거울 속에서 마주하게 되는 '나'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이유 말이다. 내 안에 있지만 아직 찾지 못한 그 소중한 꿈을 꼭 찾아내길 바란다. 그 꿈은 분명 당신이 발견해내는 순간 다가와 '꽃'이 되어 줄 것이 때문이다.

다음 기수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이것이 끝은 아닐 거라 다음을 기약하던 서울YWCA '핑크머니'에서의 마지막 날이 떠오른다. 그 동안 서로 놀리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때로는 아웅다웅했던 기억들이 물려와 헤어지기가 참 힘들었다. 돌이켜보면 난 나의 20대를 예쁜 물감으로 열심히 색칠하고 있었던 것 같다. 가끔은 무모했고, 때로는 멍청했고, 어떤 때는 놀랍도록 성실하기도 했다. 이런 내 20대의 절반을 보낸 대학 생활은 '취업'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귀결되기에는 너무도 다양하게 빛나고 있었다. 직장인이 되고자 도전하는 것은 사실 내 인생에서 이제 막 다른 색깔의 물감 하나를 집어 들었을 뿐인 거라고, 어느 날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다.

지금 우리는 더 멀리 가기 위한 또 다른 출발점에서 있다. 무슨 일이 일어날 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미래들이 모여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시간들이 나를 더 멀리 갈 수 있게 해줄 것이라 믿는다. 

Y를 알아가는 시간

글 | 김수연 (연합회 Y아카데미 간사)




1단계 실무자 교육은 YWCA 소속이 되어 제일 먼저 만나는 교육이다. 사람도 첫 인상이 중요한 것처럼 실무자들이 이 교육을 통해 YWCA의 목적과 정체성을 확립하고, YWCA운동가로서의 비전과 사명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을 기획했다. 지난 3월에 이어 2014년 YWCA 제2차 1단계 실무자교육은 2014년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다양한 연령, 경력 등의 실무자들이 61명이 참석했다. 힐링, 회복, YWCA의 이해, 6대과제의 이해 등 각자가 가진 부푼 기대감을 가지고 버들캠프장으로 모였다.

첫째날은 Y의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Y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첫 시간은 연합회 유성희 사무총장과의 만남이었다. 2시간 동안 90여 년의 시간을 설명할 수 없지만, 실천적 기독교 여성운동으로서의 Y운동의 정체성을 끊임없는 열정과 Y에 대한 사랑으로 나누어주셔서 신임 실무자들에게는 동기부여가 되는 시간이었다. 두 번째 시간은 토크 콘서트 'Herstory'로 꾸며졌다. 장원자 센터장(수원여성인력개발센터), 이해정 사무총장(청주YWCA), 이명화 센터장(아하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을 패널로 초대하여 Y운동가로서 또한 선배로서 진솔한 대화를 나누어 주셨다. 신임 실무자들에게 롤 모델이 되는 시간이었다고 Y운동가 선배들의 이야기를 각자의 마음속에 새기며 다짐하는 시간이었다.

둘째날은 Y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 교육에 참석하기 전 각자가 받은 사전과제를 통해 연구해온 YWCA의 역사와 인물에 대해서 발표했다. 실무자들이 가장 부담스럽게 느끼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제일 많이 배우는 시간이기도 했다. 발표와 더불어 최만자 위원(Y아카데미위원회)의 코멘트를 통해 역사적 배경을 기반으로 Y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후에는 리빙 라이브러리(Living Library) 형식으

로 신임 실무자들이 궁금하거나 더 알고 싶은 과제들을 중심으로 소그룹으로 연합회 활동가들과 6대 과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다. 저녁에는 장운재 목사(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 정의, 평화, 생명의 키워드를 설명하며, 기독교정신을 가지고 활동하는 기관으로 운동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 수 있는 시간이었다.

셋째날은 Y운동가 되기의 시간이었다. 연합회 차경애 회장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롬 12:18)는 말씀으로 Y의 매력이 있어 오랜 시간을 Y와 함께 했다고 소개했다. 사랑의 상징이요 인내와 노력의 상징이며 희생과 봉사의 상징이라고 불리는 박에스더 선생님의 모습과 같이 훌륭한 지도자가 되길 바란다라는 응원과 격려도 아끼지 않으셨다. 마지막 시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Y활동가 리더십 요소'를 생각해보는 워크숍을 했다. 신임 실무자들은 신앙을 바탕으로 사랑, 공감, 솔선수범, 배려, 포용 등의 리더십의 요소들을 가지고 리더의 그릇에 채워 넣어야 한다고 다짐했다.

교육을 마친 뒤 성남Y 변지선 간사는 "박에스더 선생님을 비롯해 많은 Y 선배들의 작은 희생으로 지금의 YWCA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그분들이 지금의 YWCA를 만들기 위해 희생하며 노력했기에 지금 내가 YWCA에서 일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소감을 나눴다. 부산Y 이신영 간사는 "말고 있는 Y-틴 회원들을 앞으로 어떻게 끌어안고 나가야 할지, 나아가 이들에게 Y다운 비전과 에너지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어떻게 심어줄지 고민하는 안고 가는 자리가 되었다"면서 "차근차근 그들에게 녹아들 수 있게끔 가이드 역할을 잘 해줘야겠다"고 말했다. 먼 훗날 1단계 실무자교육의 강사로, 각 지역의 리더로 있는 신임 실무자들의 모습을 상상해본다. 

돌봄노동과 인권 -가사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

글 | 정서연 (연합회 간사)

연합회는 10월 15일 광주YWCA 강당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광주YWCA(회장: 최양님)와 공동주관하는 제4차 YWCA 돌봄정의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돌봄노동과 인권-가사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주제 발제와 지정토론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 발제를 한 문현아(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연구원은 '가사노동과 인권'을 주제로 가사노동이 노동으로서 제대로 자리매김하지 못한 요인들 중 '인권'에 주목했다.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1953년부터 가사노동을 제외해서 가사노동을 근로기준법의 예외조항으로 만들어 놓았다. 문 연구원은 가사노동자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서는 가사노동이 국내 노동관계법에 적용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광지영(연합회 위원, 숭실사이버대학교) 교수는 'YWCA 돌봄 회원들의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이라는 주제로 돌봄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여전히 낮고, 돌봄노동자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 지원으로 '산재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 보장과 퇴직금 지원'을 언급했다.

이날 포럼에서 첫 번째 지정토론자로 나선 광주Y 김미희 부장은 '가사돌봄 노동자 인권실태 설문조사 결과발표'를 통해 광주 지역 가사돌봄노동자 19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발표했다. 가사노동자의 상당수는 아직도 인권침해와 직업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들은 '인권적으로 대우받지 못한 이유'를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로 돌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광주Y 살림돌봄미 문현숙 회원은 '인권이 존중되는 가사노동자의 바람'이라는 주제로 가사노동자로서의 경험담과 Y 돌봄 회원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고 전문 직업인으로 일하고 있음을 이야기했다. 광주Y 살림돌봄 이용자인 나인형 회원은 '가사노동 이용자의 욕



구에 부응하는 양질의 가사노동'이라는 주제로 살림돌봄미 회원의 고충을 듣고 나니 이용자로서 가사노동자를 직업인으로서 존중하고, 앞으로 더욱 돌봄이들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대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다음으로 연합회 배정미 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가사노동자 공급 기관으로서의 YWCA의 책임과 역할'에서 "Y 돌봄회원은 자매애를 기본으로 한 상부상조의 전통을 존중하는 회원 공동체의 장점을 십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돌봄 회원 스스로가 삶의 주체가 되는 조직이 되기 위해 연구와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광주 광산구 김광란 의원은 '인권이 존중되는 돌봄 지역사회를 이루기 위한 제안'이라는 주제로 돌봄노동자들이 당사자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광주시에서 2012년 선포한 '광주인권헌장'의 내용을 밝히며 YWCA가 돌봄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목소리를 높여줄 것을 제안했고 지자체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세 차례의 돌봄정의포럼에서는 '돌봄 가치의 근원을 찾아서', '보편적 복지로서의 돌봄', '돌봄노동은 사회화되어야 할 돌봄노동입니다'라는 주제로 개최된 바 있다. 

우리 학교에 가고 싶은 공간이 생겼어요

2012년부터 시작되어 한국YWCA연합회와 포스코가 함께하는 친친 와이파이즌은 2014년 올해 6개의 회원YWCA가 함께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올해 2월 회원 Y와 지역의 중학교 1곳이 연결되어 '우리학교는 친친와이파이즌' 프로젝트에는 광양Y, 대전Y, 서울Y가, '찾아가는 친친 와이파이즌' 프로젝트에는 충주Y, 파주Y, 포항Y가 선정되었다. 특히 '찾아가는 친친 와이파이즌'은 나후지역에 위치해 있고 전교생이 400명 이하인 학교들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소통과 공감을 실천하고 확산시키는 의미가 있다.

충주YWCA는 2014년 폭력 없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올해 2월 충주 중원중 학교장·교사 간담회를 통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3월부터 5월까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실시되는 '친친 공감 프로그램-공감 강사 교육'에 충주Y의 회원이자 청소년교육 및 상담에 관심 있는 6명의 자원활동가가 교육을 수료하고 공감 강사로서의 자격을 갖췄다. 6월과 7월에는 공감 강사들을 대상으로 '공감 강사 연구 모임'을 실시해 각자 차시별로 만들어진 프레젠테이션으로 시연과 피드백을 통해 교육안을 공유했다.

전학년 4개 학급 대상 반별 프로그램은 공감교육, TRIZ(창의적 문제 해결 기법), 꿈의 스토리의 주제로 6월

과 7월에 총 6회기에 걸쳐 진행됐다. 모둠별로 돌아가며 모든 학생들이 소외가 아닌 참여, 소통, 공감을 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공감프로그램	6월 25일 7월 17일	언어의 힘과 공감나무 만들기 프로그램 진행을 통하여 친구들의 장점을 살려 칭찬할 수 있고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 지원
트리즈	7월 18일	창의력을 발휘하여 주어진 조건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나로호의 추락을 막아라, 가장 높은 탑 쌓기' 진행
꿈의 스토리	7월 18일	4개 학급에 4개의 다른 직업군을 가진 지역의 직업군을 섭외 후 선호하는 교실을 선택하여 직업에 대하여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전교생 90명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 충주 중원중학교는 현재 자유학기제 시범 운영학교이며 학생들이 소수정예라서 서로 친밀하고, 학교 주변 자연 경관이 풍부하고 교내 조경이 좋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꼽혔다. 충주Y와 충주 중원중학교가 함께하는 '학교 공간 바꾸기' 프로젝트는 사회적기업 (주)스페이스플러스와 함께 2014년 5월 1차 기획단 회의를 시작으로 7월 2차, 3차 기획단 회의를 거쳐 9월 19일 작업을 완료했다.



공사 전 (충주 중원중학교 옥상 진입 계단)



공사 후



1층 정문, 3층 계단, 4층 옥상 입구의 변화된 모습

학교 내의 어둡고 후미진 장소를 페인트칠하거나 공간을 재구성하는 작업을 위해 충주Y와 중원중학교는 학교 건물 정문의 비어 있는 공간과 옥상으로 올라가는 길이 위협해서 '학생 출입금지'라는 띠를 붙여놓은 3층 계단과 옥상 앞 4층 공간에 주목했다. (주)스플 심소라 대표는 힐링 라운지(Healing Lounge), 글로벌 라운지(Global Lounge), 그린 플로우(Green Flow)라는 세 가지 컨셉으로 공간 디자인을 시작했다. 청소년들에게 쉼이 되는 공간으로 만들고, 중원(中原)이라는 학교의 이름처럼 중원중의 학생들이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꿈을 꾸는 공간, 또한 학교 주변의 나무와 식물들과 어우러져 실내로 자연이 들어와 함께 흐르는 공간으로 디자인했다.

이번 '학교 공간 바꾸기'에서는 어른들이 완성해주는 공간이 아니라 중원중학교 전교생 90명과 교사들이 직접 학교 공간을 꾸미는 데 의미를 담았다. 9월 19일 강당에 모인 아이들은 심 대표의 설명을 듣고 스스로 참여할 공간 바꾸기 작업에 대해 들뜬 분위기를 보였다. 전교생이 참여할 작업은 초록색과 연두색의 나뭇잎 모양의 시트지를 떼어내어 1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의 난간을 꾸몄다. 학생들은 모두가 공동으로 함께 하는 이 작업을 통해 친밀감을 높였다.


그동안 학생들의 출입을 제한하였던 옥상 진입 계단에 휴게 공간이 마련되었고 학생들은 앞으로 이곳에 모여 소통하고 고민을 나눌 수 있게 되었다. 자연친화적인 나무로 만든 세계지도가 벽면을 장식하고 있어 중원중 학생들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꿈을 키워갈 것이다.

학생들은 작업을 완료한 후 녹색 메모지에 활동 소감을

남기며 충주Y에 감사한 마음을 전했다. 이번 프로젝트에 학생기획단으로 참여한 이주엽(15세, 충주 중원중 학생회장) 학생은 "우리가 제안한 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졌다"며 "전교생이 참여하여 공간 바꾸기를 해 낸 오늘의 기억은 중원중의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충주 중원중학교 김광욱 교감은 "수업보다 어려운 프로그램을 위해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 공간을 통해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해질 것" 같고 "이번 행사로 끝이 아니라 이 공간을 지속적으로 활용하는 아이디어를 충주YWCA와 함께 협력하며 교류하길 기대한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찾아가는 친친 와이파이즌' 담당 실무를 맡은 충주Y 김애영 부장은 "충주시 교육청과 중원중에서 프로그램의 목적과 과정을 잘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수월하게 소통하며 진행할 수 있었다"며 "충주Y에서 '애들아 밥먹자'나 1일 교육과 같은 프로그램들은 있었지만 장기 프로젝트는 처음이라 부담스러웠지만, 충주Y 청소년위원회를 비롯한 자원지도력과 실무자들이 아이디어를 모아 협력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충주Y의 공감 강사들을 이번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이후 Y-틴, 지역 청소년들과 함께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다"며 충주Y가 나아갈 길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충주Y는 예산을 절약해 기존 계획에는 없었던 전교생이 참여하는 캠프를 문경보문청소년교육상담연구소 소장을 강사로 모시고 10월에 갖기로 계획했다. 앞으로의 충주Y의 활동들이 더욱 기대된다. (글: 편집실) 

세월호 진실 규명과 희생자 추모해

글 | 편집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실종자 구조를 염원하는 기도회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실종자 구조를 염원하는 기도회가 2014년 9월 12일 오후 2시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회 주관으로 각 교단의 사회봉사부 목사님들과 교계 여성단체인 YWCA가 참석한 가운데 진도 팽목항에서 열렸다.

“세월호 참사로 인해 희생당한 이들을 추모하고, 그들의 가족을 마음으로 위로합니다. 또한 아직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10명의 실종자와 사랑하는 가족을 애타게

기다리는 실종자 가족들의 아픔을 공감하며 위로합니다. 고통의 자리,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 우리 먼저 기다리시는 하늘로부터 위로받는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인도자의 예배 부름으로 시작된 기도회에서 30여 명의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규명될 수 있도록 세월호 특별법이 제정되고 무능한 정부는 책임 있는 자세로 참회하고 사죄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을 기도하였다.


이어진 증언의 시간에는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일 수요일 밤 후 매일 이곳 팽목항에서 구조활동과 가족들을 돌봐 오신 진도신진교회 조원식 목사님의 세월호 구조 활동에 대한 보고와 교계의 가족 지원과 수색작업 식사지원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그리고 지역을 중심으로 한 교계의 세월호 대책 상황을 나누었다. 이후 진도체육관에 들러 실종자 가족들을 지원하는 봉사자들을 격려하며, 그곳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길 기도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걷는 생명평화 도보 순례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의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걷는 생명평화 도보 순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성공회 사제단 도보순례단은 9월 29일 전남 진도 팽목항에서 출발하여 서울 광화문까지 557km를 걷는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며 걷는 생명평화 도보 순례’를 통해 이땅에서 무고하게 죽어간 희생자를 추모하는 역사적 발자취를 함께 하고 있다. 순례 코스는 팽목항을 시작으로 진도실내체육

관, 광주 국립5·18민주묘지, 동학혁명기념관, 전북 김제 6·25참전기념비, 충남 공주 우금치 전적지, 3·1만세운동이 일어난 천안의 병천 아우내, 경기도 안산 단원고, 광화문 등이다. 도보순례단은 10월 18일까지 20일만에 걸쳐 어린 생명들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의 의미를 잊지 않고 생명평화의 기운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한 순례를 마친다.

16일에는 저녁 6시에 안산 합동분향소에서 추모예배를 드린 후 세월호에 탑승한 수학여행단의 모교인 경기도 안산 단원고 등에 이어 18일 광화문에 도착하게 된다. 사제단은 도보순례가 군사정권이 들어선 1980년부터 울들어 발생한 세월호 참사까지 한반도에서 억울하게 죽어간 무고한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 곳곳에 산재한 근현대사의 역사적 장소를 직접 걸었으며 순례의 취지에 공감하는 일반 시민들도 부분 구간에 함께 참여할 수 있다. 

비움과 채움

글 | 이천진 (한양대학교회 담임목사, 연합회 전문자문위원)

거룩한 독서는 라틴어로 렉시오 디비나(Lectio Divina)이다. 초대교회로부터 내려온 그리스도교의 영성훈련방법이다.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는 훈련이다. 12세기의 수도자인 귀고(Guigo)가 정리한 렉시오 디비나의 4단계는 읽기(Lectio), 묵상하기(Meditatio), 기도하기(Oratio), 관상하기(Contemplatio)이다.

읽기는 성서를 작은 소리로 천천히 읽습니다. 묵상하기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마음에 와 닿는 단어를 붙잡습니다. 기도하기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향하는 단계입니다. 참회의 기도, 간구의 기도, 감사의 기도, 찬미의 기도를 드립니다. 관상하기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자리로 가는 단계입니다. '존재하는 어떤 것에 대한 사랑스런 임재'를 경험하는 단계입니다.

읽기 (Lectio)

마태복음 11장 16절-30절

16 “이 세대를 무엇에 비길까? 마치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17 ‘우리가 너희에게 피리를 불어도 너희는 춤을 추지 않았고,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18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는 귀신이 들렸다’ 하고, 19 인자는 와서,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보아라, 저 사람은 마구 먹어대는 자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한다. 그러나 너희는 그 한 일로 옳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20 그 때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기적을 많이 행한 마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꾸짖기 시작하셨다. 21 “고라신아, 너에게 화가 있다. 벧새다야, 너에게 화가 있다. 너희 마을들에서 행한 기적들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더라면, 그들은 벌써 굶은 베 옷을 입고, 재를 쓰고서, 회개하였을 것이다.

22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23 화가 있다. 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치솟을 썸이냐? 지옥에까지 떨어질 것이다. 너 가버나움에서 행한 기적들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는 오늘까지 남아 있을 것이다. 24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25 그 때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드러내어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26 그렇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입니다. 27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아버지 밖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으며, 아들과 또 아들이 계시하여 주려고 하는 사람 밖에는 아버지를 아는 이가 없습니다.” 28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29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쉬을 것이다. 30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묵상 (Meditatio)

- 1. 아이들이 어디에 앉아서 말했습니까? (16절)
- 2. 피리를 불어도 사람들은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17절)

3. 곡을 해도 무엇을 하지 않았습니까? (17절)
4. 요한이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18절)
5. 예수께서 먹고 마시자, 사람들은 포도주를 마시는 자요, 세리와 누구의 친구라고 하였습니까? (19절)
6. 예수께서 사람들이 무엇을 하지 않자, 꾸짖으셨습니까? (20절)
7. 예수께서 누구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셨습니까? (28절)
8. 예수께서 무엇을 메라고 하셨습니까? (29절)

기도(Oratio) / 묵상 나눔

무거운 짐과 안식

예수께서는 동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장터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놀이에 비유하셨습니다. (16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아이들에게 비유하신 것은 그들이 아이들처럼 유치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아이들의 놀이 중에 결혼식 놀이가 있었습니다. 피리를 불면서 하는 놀이입니다. 한 아이가 피리를 불면 다른 아이들은 춤을 추었습니다. 또 하나의 놀이는 장례식 놀이입니다. 한 아이가 슬프게 울면, 다른 아이



예수 그리스도(Jesus Christ), 조르즈 루오(Georges Rouault)

들은 곡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께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았습니다. 세례요한이 슬프게 울어도 곡을 하지 않았습니다. (17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금식하는 요한에게 "귀신이 들렸다"고 비난했습니다. (18절)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예수께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19절)

예수께서는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고라신, 벳새다, 겐셋마네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와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방식을 내세우면서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저주하고, 심판하셨습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신아 화 있을진저 벳새다야" (21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23절)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는 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은 교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들은 예수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어린 아이같이 자신을 낮추는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의 방식을 받아들였습니다. (25절)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26절)

아직도 자신의 방식을 고집하면서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28절) "나에게 오라. 그래야 안식이 있다." (28절)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성격이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 앞에서 온유하다, 겸손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을 잘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온유'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라우스"(πραως)입니다. '짐승을 길들이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길들이지는 상태'가 온유입니다. "이것을 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멍에를 메어라. 그리고 나의 방식을 배워라. 거기에 안식이 있다." (29절) 나의 방식을 비워야 예수의 마음, 예수의 방식이 채워지고,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 핵심 질문** 핵은 나의 방식입니까, 예수의 방식입니까?
 핵은 비워야 하는 것입니까, 채워야 하는 것입니까?
 핵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입니까, 안식입니까?

핵은 창조세계에 대한 폭력

장윤재 목사는 2014년 1월 2일, YWCA 신년예배에서 이



체르노빌사태 이후 태어난 뇌 이상 기형아를 돌보고 있는 여성 (출처 http://todayspictures.slate.com/inmotion/essay_chernobyl/)


렇게 설교했습니다. "원자력, 즉 핵에너지는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천만한 도박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사는 일상적인 세계의 에너지와 완전히 다른 이질적인 에너지이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조건에서 원자는 안정되어 있습니다. 원자를 구성하는 원자핵은 항상 안정되어 있고, 원자핵의 주위를 돌고 있는 전자가 이리저리하게 결합되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변화가 사물을 만들고 우리의 몸도 만듭니다. 우리가 사는 일상의 세계, 생명의 세계란 이렇게 원자핵의 안정을 토대로 이루어진 세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생명의 세계는 바로 이렇게 원자핵의 안정을 대전제로 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원자력의 세계, 즉 핵에너지의 세계는 이와 같은 생명세계의 대전제인 원자핵의 안정성에 감히 도전함으로써, 즉 원자핵의 안정성을 깨뜨린 세계입니다. 그렇게 생명세계의 안정성을 깨뜨려 얻은 막대한 에너지로 인간이 처음 한 일은 무기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핵의 세계는 우리의 일상세계와 생명세계에 대한 근원적인 위협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폭거이고 폭력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핵은 폭력하기에 인류의 안식을 방해합니다. 핵은 인류의 안식을 위해서 채워야 하는 것이 아니고, 비워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여인숙

시인 류시화님의 '지구별 여행자'에 나오는 '내 영혼의 여인숙'이라는 글을 요약합니다. "올드 시타람 여인숙으로 들어서는 순간, 나는 여인숙 이름 앞에 왜 '올드'가 붙었는지 알 수 있었다... 여인숙 안에는 매우 늙은 노인이 한명 있었는데, 그가 바로 여인숙 주인 '올드 시타람'씨였다... 쥐는

우리를 보더니 앞발을 땅에 짚고서 약간 당황해 했다... 누가 봐도 지저분하고 누추하고 짝이 없는 방이었다... 선뜻 발을 들여놓기 힘든 방이었다. 내가 '바후트 간다헤'(너무 더러워요)하고 말하자 주인은 또다시 '네버 마인드'(신경 쓰지 말라)하고 손을 내저었다... 세수를 하려고 베낭을 연 나는 너무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다. 밤사이에 누군가 베낭을 마구 들쭉서 놓은 것이었다. 나는 벌린 입을 하고 당장에 여인숙주인에게로 달려가 따졌다...'

'신이 준 성스런 아침을 불평으로 시작하지 마시오, 그 대신 기도와 명상으로 시작하십시오.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 불평을 한다고 해서 무엇을 얻을 수가 있겠소? 당신이 할 일은 그것으로부터 뭔가를 배우는 것이요...' '당신은 지금 인도에 여행을 온 것이지, 불평을 하러 온 건 아니잖소' 올드 시타람씨의 지적은 '세상이 어떠한가 보다, 우리가 그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가르침에 다름 아니었다. 서너 해 뒤 내가 다시 올드 시타람 여인숙을 찾았을 때 그곳은 놀랍게도 '뉴 시타람'으로 바뀌어 있었다. 시타람씨는... 세상을 떠나고, 풍채 좋은 아들 시타람 씨가 그곳을 멋진 여인숙으로 개조해 놓았다... 나는 뉴 시타람에서 하룻밤을 묵은 뒤 이튿날 다른 곳으로 떠났다. 왜냐하면 그곳에는 금빛 나는 사워꼭지와 폭신한 베개가 있었지만, 올드 시타람씨가 갖고 있던 어떤 영적인 향기가 사라지고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은 핵을 보관하고 있는 여인숙에 들어가시겠습니까? 영적인 향기가 넘치는 여인숙에서 안식하시겠습니까? 

기도(Oratio) / 묵상 나눔

1)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2) 내가 가장 안식하고 싶을 때는 언제입니까?

3) 탈핵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을 격려합니다.

사회적기업과 함께 하는 윤리적 소비 캠페인

글 | 장원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자원연계팀 팀장)

연합회는 지난 2월부터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사무국을 담당하고 있다. 2011년 출범한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는 민관협력네트워크로 사회적기업 친화적 생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교육 및 홍보활동, 사회적기업 육성 및 발굴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별히 윤리적 소비문화 확산을 위하여 윤리적 소비 캠페인과 윤리적 소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윤리적 소비

‘윤리적 소비’는 이제는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관심을 갖는 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주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소비란 주제는 아직도 무겁거나 어려운 이야기로 비춰지기도 한다. 윤리적 소비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윤리적 소비라는 단어에 대한 중압감에 다른 이름은 없을까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비윤리적인 서비스와 재화들이 늘어나고 있고, 이제는 한두 가지의 윤리적 부분을 과대 포장하여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시장 상황에서 올바른 윤리적 소비캠페인은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는 시급한 일이 되었다.

윤리적 소비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때 구매 기준을 가격에 두지 않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가 지니고 있는 윤리적 가치에 의해 소비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는 윤리적인 생각이 있지만 여전히 일반적인 소비 형태는 가격, 디자인, 품질과 같은 요소들이 구매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소비 형태는 재화 속에 숨겨진 무분별한 자원의 남용, 노동 착취적인 행위, 불합리한 가격과 불공정한 이윤 배분 등의 문제를 만들어 내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부의 집중과 환경 파괴, 사회 갈등과 같은 대가를 치르고 있다.

이제 윤리적 소비를 통해 왜곡된 길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여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방법을 찾아야 한다.

윤리적 소비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 이용

이를 위해 먼저 자신이 가장 쉽게, 즐겁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비윤리적으로 생산되는 서비스나 재화의 구매를 막는 불매 운동과 윤리적 제품을 권장하는 구매운동,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소비를 위한 ‘녹색소비’, 로컬푸드(Local Food), 재활용을 통한 업사이클링(Upcycling) 제품의 사용, 생산자에게 정당한 가격을 지급하는 ‘공정무역’, 여행지와 원주민을 배려하는 ‘공정여행’ 등 우리 주위에는 많은 윤리적 소비의 기회들이 있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비전을 가지고 기업활동을 하는 ‘사회적기업’의 생산품과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도 좋은 윤리적 소비의 방법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다. 윤리적 소비를 고민하고 생각을 나눌 수 있는 ‘윤리적소비 공모전’이 사회적 경제 조직들과 함께 진행되고 있다. 2014년 윤리적소비 공모전은 소비에 필요한 8가지 생각(사회적 약자 배려, 인권 보호, 식품안전, 동물복지, 환경보호,

2014 윤리적 소비 공모전
소비에 필요한 생각 8가지

- 민주주의 실현
- 사회적 약자 배려
- 동물복지
- 안전보호
- 환경보호
- 인권보호
- 제3세계 연대
- 다양성 존중

2014 윤리적 소비 공모전
 Ethical Consumerism Competition

www.ethicalconsumer.org

지역사회의 책임, 민주주의 실천, 제3세계 연대)을 담아 진행하고 있다. 윤리적 소비의 경험담을 이야기하거나 윤리적 소비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디자인을 통해 윤리적 소비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수사회적기업에 대한 격려와 우수 사례 확산을 위한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드’를 한국YWCA연합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와 함께 준비 중이다. 이를 통해 발굴되는 사회적기업 우수 사례들은

윤리적 소비를 위한 생산을 독려하고 확산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 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진행되고 있다. 설날과 추석 명절에는 사회적기업의 제품들로 구성된 선물 세트를 기획하여 설/추석 사회적기업 윤리적 소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홈쇼핑 채널의 방송 기부를 통한 사회적기업 제품의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윤리적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적기업 제품에 대한 상시적인 구매를 위해 스토어 36.5 매장과 슝인슝 등을 지원하여 사회적기업 제품 사용을 통한 윤리적 소비 실천을 확장시키고 있다.

사회적기업과 함께하는 윤리적 소비 캠페인은 생각하고, 찾아보고, 실천하는 과정의 반복을 통해 윤리적 소비의 확산과 정착을 준비하고 있다. 반복되는 실천을 통해 생활 속의 시민운동으로 강력하고 지속적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참여자들의 생각과 노력과 행동은 조용하지만 효과적으로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아직은 작게 보이지만 윤리적 소비 캠페인 참여와 확대를 통해 큰 변화의 시작을 기대할 수 있다. 그동안 진행된 윤리적 소비 캠페인을 통해 얻은 결실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한다. 윤리적 소비는 비윤리적인 방법들에 의해 단절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의 욕심에 의해 파괴된 환경들이 복구되어 우리가 사는 세상보다 좀 더 나은 세상을 우리 아이들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될 것이다.

중견 실무자들의 심, 힘과 자매애를 키우다

글 | 최수신나 (연합회 Y아카데미 부장)

YWCA 중견 실무자들이 지역에서 뭉쳤다. 그동안 지쳐있는 몸에 힘을 갖고 활동의 고민을 나누며 연대를 다지기 위해 지역별로 진행한 '중견 실무자 네트워크'는, 중견 실무자들의 요구와 각 지역별 특색을 반영하여 더욱 살아있는 기획과 운영이 되기에 충분했다.

중견 실무자라는 이름

Y 실무자로 지내며 어느덧 중견의 이름을 갖고, 속한 회원Y에서 책임감과 업무의 부담을 느끼며, 그에 따라 무력무력 자라난 Y를 사랑하는 마음을 키워온 이들. 스스로가 표현하는 솔직한 본인들의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가족 내에서도 한창 바쁘게 일을 도맡아야 하는 시기이고, 일에서도 세부적인 사항부터 조직과 지역의 중간 책임자까지 다양한 역할을 요구받는 슈퍼우먼의 모습이 회원Y에서 만나는 중견 실무자들의 현재일 것이다.

중견 실무자 네트워크는 5곳의 지역별 아카데미센터를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별로 20명 이내의 소수 그룹별로 진행됨으로써 진솔한 고민 나눔과 섬의 시간이 될 뿐 아니라 서로에게 따뜻한 힘과 든든한 자매애를 품는 네트워크가 되어 지속 가능한 Y 활동에 힘을 얻을 수 있기를 희망하며 기획되었다. 서부지역은 8월 말에, 북부지역은 9월 말에 진행하였으며, 중부, 동부, 경기는 10월과 11월 중에 진행 예정이다. 각 연수에 참여한 실무자들은 이 기회를 통해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기 힘들었던 사람들과 교류하는 기쁨, 기행에서 만나는 몸 살림의 기회를 얻는 행복, 복잡함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힘을 얻는 여유 등을 얻었다는 꽤 만족스러운 후기들을 전해주었다.

북부, 여성주의에 새롭게 다가서다

북부지역은 여성주의와 리더십을 테마로 하여, 여성주의에 대한 집중 탐구를 통해 자아를 성찰함으로써 충전의 기회를 가졌다. 여성주의와 리더십 나눔을 위해 나임윤경 연세대 교수이자 젠더연구소장을 강사로 모셨으며, 그 외에도 사회심리극이라는 매개를 통해 상처에 공감하고 치유하는 시간, 그리고 몸으로 마음을 코칭함으로써 여성의 몸에 대해 생각하고 몸의 자유를 추구함에 대한 생각의 기회를 가졌다. 또한 성미산 마을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도심에서 마을 만들기의 실재를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활동 방향과 가능성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서



북부지역YWCA 중견실무자 네트워크



서부지역 중견네트워크 '마라도에서 탈핵 플래시몹'


울, 인천, 강릉, 속초, 춘천에서 총 18명의 실무자가 함께 하였으며, 공부하고 울고 웃으며, 배우고 치유하고 충전하는 프로그램 속에서 여성주의에 대해 편견을 깨고 자기를 새롭게 돌아보는 기회로 가졌으며, 소진되었던 상태에서 충전의 기운을 얻을 수 있었다.

서부, 마라도에서 탈핵 플래시몹을

서부 지역은 Y아카데미 지원에 한국여성재단의 후원을 더하는 기회를 얻어 'NGO 희망지기 날다. 느낌 아니까?!' 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제주 기행을 진행하게 되었다. 제주Y와 서귀포Y의 현지 회원Y 도움을 받아 더욱 풍성한 일정으로 마련되었으며, 더불어 이신선 서귀포Y 사무총장의 성인지 강의를 통해 선배의 멋진 활동의 경험과 애정 어린 조언을 듣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김정 바지와 노란 셔츠, 흰 장갑 등을 미리 준비하여 아름다운 섬 마라도에서 벌였던 탈핵 플래시몹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훼손 없이 후손들에게 물려주겠다는 중견 실무자들의 결단을 담은 탈핵운동의 일환으로 기획된 캠페인이었다.

다행히 현지 관광객들도 탈핵의 중요성을 마라도에서 접하게 되어 생활의 실천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며 즐겁게 호응 해주어 더욱 그 의미를 살릴 수 있었다. 참여자로는 광주, 목포, 순천, 여수, 광양, 전주, 익산, 남원, 제주, 서귀포에서 총 17명이 함께 하였는데, 2년차부터 20년차까지 다양한 경력에 각기 처한 현실도 어려운 상황들이라 자칫 푸념으로 이어질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선후배간 가식 없는 교류에서 해법을 찾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수다를 통해 긍정적 힘을 얻는 일정으로 발이 닿는 곳마다 축복을 느끼는 여정이었음을 고백하였다.

Y 실무자가 성장해야 Y가 성장한다

서로 다른 상황들에 처해 있지만 서로의 고충을 이해하고 위로해줄 수 있는 중견 실무자들. 굳이 말로 나누지 않아도 느낌 아는 사이이기에 마음을 보듬어주며 긍정적이고 실제적인 힘이 되어주는 가운데, 비록 쉽지 않지만 Y에서 함께 한 시간들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활동가들. 이 연수를 통해 치유되고 활력이 되었던 것들을 각자 회원Y에 돌아가 회원들과 나누고 베풀며 지역지기로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활동가들을 하나님께서 강하고 굳세게 잡아주시기를 기도하며, 'Y 실무자가 성장해야 Y가 성장한다'는 선배의 격려를 빌어 바람을 대신하고자 한다. 



유치원에서부터 '집단교육'을 받는 북한 어린이들

글 | 김주영 (연합회 북한어린이돕기사업단 위원)



북한 유치원 어린이들 출처 뉴포커스

본래 유치원(幼稚園)이란 학령 미달의 어린이를 보육하여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 교육시설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09년에 최초로 생겼습니다. 요즘의 경우 매우 다양한 형태의 유치원이 존재하기도 해서 취학 전 유아를 둔 엄마라면 내 아이에게 어떠한 유치원이 맞을까라는 고민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북한의 유치원은 어떨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북한의 유치원은 우리의 유치원과 근본부터가 매우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교육이념은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공산주의적 세계관과 인간관에 기초한 김일성 주체사상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의 보편적인 목적 자체가 모든 사람을 혁명화, 노동 계급화 하여 공산주의적 혁명 인재로 키우는 데 있으며 취학 전 교육의 목적도 본질적으로는 이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법령에도 잘 나와 있는데 북한의 교육목적은 “건전한 사상의식과 깊은 과학기술 지식, 튼튼한 체력을 지닌 인재를 키우는 것”으로 교육법 제1장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북한의 유치원은 남한과는 다르게 '집단주의 교육'에 힘쓰며 아직은 엄마 품이 그리울 나이의 아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 수용하여 집단교육을 시작하고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교수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합니다.

북한의 유치원 교육은 의무교육에 포함되어 있어서 남한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짜여 있습니다. 5세(만4세)이상 어린이들은 2년간 유치원에 다니게 되는데요, 북한 유치원 교육 과정은 정치사상교육(김일성, 김정일 어린시절) 13%, 지적교육(우리말, 셈세기, 관찰) 23%, 정서교육(노래

와 춤, 그리기와 만들기) 31%, 체육 교육 13%, 기타(놀이) 20%로 구성됩니다.

아이들의 유치원 생활 모습은 어떨까요? 오전 중에 낮은 반에서는 30분, 높은 반에서는 45분 동안 수업을 하고 이후 30여 분간의 바깥놀이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에 있어서는 오전과 오후에 2차례의 간식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게 맞지만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심각한 식량난으로 음식 공급이 어려워 졌으며, 1996년 남북문제 연구소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3만여 개의 유치원, 탁아소 중 70%가 사실상 폐쇄상태라고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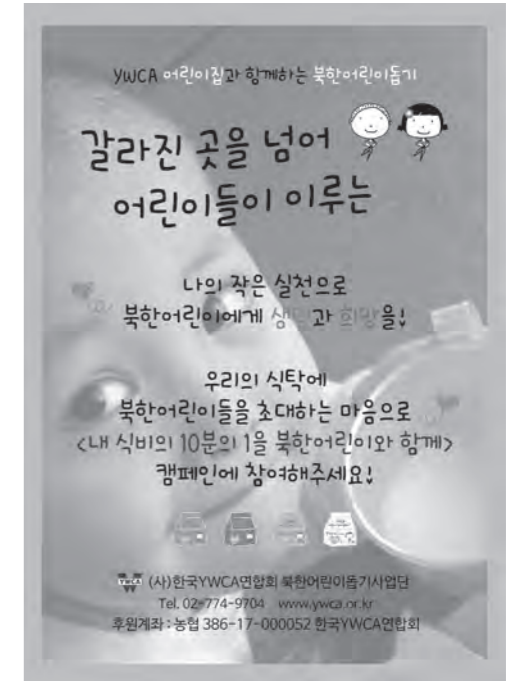
다음으로 북한의 유치원 교사는 어떤 대우를 받을까요? 북한의 교원은 탁아소는 보육원, 유치원은 교양원이라 칭하여 구분합니다. 유치원 교원인 교양원은 3년제 교원대학교 혹은 교양원 양성소를 거치거나 교원, 사범대학의 야간 학부를 졸업 후 교원자격검정시험을 통과해야 비로소 교양원이 됩니다. 그리하여 사회적으로 초등학교, 고등중학교 교사와 똑같은 대우를 받고 심지어는 상점에서 줄을 서지 않고도 먼저 물건을 살 수 있는 특혜마저 누린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의 유치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북한의 유치원은 우리와는 다른 교육의 목적, 방식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의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을 이해한다는 것은 훗날 통일이 되었을 때, 서로 이해하며 남한아이들과의 서로 어울리며 함께 할 유치원 생활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족의 통일은 여전히 험난한 여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만 남한과 북한의 아이들이 함께 웃으면서 아무런 걱정 없이 뛰어놀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도 YWCA어린이집과 함께 하는 북한어린이돕기운동

- 일 시 : 10월 17일(금) - 11월 16일(일)
(세계빈곤퇴치의 날로부터 추수감사주일까지 30일간 캠페인 진행)
- 장 소 : 26개 YWCA어린이집
- 목 표 : 세계 여러 나라의 상황과 빈곤의 이해, 북한 어린이의 빈곤 실태 이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다양한 참여활동을 통한 나눔 실천



“모든 어린이들의 생명은 존중되어야 하며, 어린이는 최상의 건강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유엔아동권리협약 중)는 기본적 생존권과 건강권을 함께 지키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나눔과 사랑의 기독교적 가치를 배우고, 평화통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YWCA는 어린이집과 함께 1992년 10월 17일 국제연합 UN에 의해 제정되어, 빈곤·기아 근절과 국제적 관심 촉구를 하고 있는 10월 17일을 '세계 빈곤퇴치의 날'로부터 시작하여 30일간 캠페인을 전개합니다.

향후 인도적 지원을 통한 민간차원의 평화운동이 지속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특히 양질의 의료, 영양 등에 있어 만성영양 불균형을 겪고 있는 북한 어린이들에 대한 공동체적인 사랑을 전하는 일이 더욱 활발하게 전개되도록, 조속히 남북 간의 관계가 개선되기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아이들의 건강함 웃음과 미래를 위해 늘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모금 보내실 곳 : 농협 386-17-000052 한국YWCA연합회

북한어린이돕기 모금 현황

9월 (2014년 9월 1일 - 9월 30일)

구분	기부자명단	금액
CMS기부 (2014. 9. 1. - 9. 30)	강승아, 고세영, 고은희, 곽지영, 구정혜, 국승훈, 권순복, 권진, 김경희, 김기동, 김미애, 김병호, 김사라, 김수연, 김애련, 김영자, 김은경, 김재연, 김진용, 명진숙, 문권희, 문미란, 문인수, 박보람, 박용옥, 박은경, 박은실, 박임희, 박지환, 박호정, 배정미, 백정미, 백혜진, 서명희, 송복희, 송윤경, 신인숙, 심명자, 안정희, 안혜진, 엄효정, 오시창, 원영희, 유도희, 유성희, 윤명선, 윤수정, 이남희, 이명혜, 이순덕, 이영미, 이영숙, 이윤숙, 이은영, 이정숙, 이종경, 이주영, 이지은A, 이지은B, 이행자, 이혜진, 임강숙, 임국미, 임진영, 장경자, 장미란, 장선희, 장윤우, 전정미, 전하예, 정동신, 정서연, 조영미, 조은영, 진인식, 채정희, 최수산나, 최우림, 최원진, 최윤영, 최지혜, 최형선, 하은경, 한승이, 한영수, 함희경, 홍기자, 홍현정, 황정아, 황홍백 (총90명)	1,446,000
개인기부 (월계좌이체기부, 기념기부등)	김미, 방원철(성광교회), 최혜실	220,000
협력교회	기쁜소식교회, 한양대학교교회 여성교회, 희성교회	150,000
기관 및 단체	마포구청 신우회	50,000
회원YWCA 부속시설	순천Y, 대전Y	1,087,600
어린이집	제주Y어린이집	544,400
교육 및 모임	2014년 정책협의회 모금액, 1단계 활동가 교육	44,700
합 계		3,498,000

동물권은 생명권

글 | 장윤재 (이화여자대학교 기독교학부 교수)

비폭력 평화사상은 인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오랫동안 인간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려 온 동물들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 폭력적인 삶을 살면서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위선이다. 믿기지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해마다 500억 마리의 동물이 인간에 의해 죽음을 당한다. 물고기를 빼면 매년 250억 마리의 동물이 인간의 음식이 되기 위해 죽고, 매년 4천만 마리의 동물이 모피가 되기 위해 죽는다.

먹고 입는 것만이 아니다. 다음 제품들의 공통점을 찾아 보라. 살충제, 표백제, 교회 초, 탈모제, 눈 메이크업, 잉크, 선텐오일, 손톱 광택제, 마스크라, 헤어스프레이. 모두 동물을 이용한 독성 실험을 거친 것들이다. 이 정도의 동물 실험은 불가피하지 않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은 다음의 동물 실험의 제목들을 숙고해 보라. 쥐를 33일간 잠재우지 않기(시카고 대학), 생후 10일 새끼고양이 양 눈을 꿰매 시력상실의 영향에 대해 관찰하기(옥스퍼드 대학), 생쥐의 두뇌에 헤르페스 바이러스 주사하기(케임브리지 대학), 사냥개 비글에 플루토늄 주사하기(하버드 대학).


“동물을 대하는 태도에 관한 한 모든 인간은 나치다.” 세계적인 동물윤리학자 피터 싱어(Peter Singer)의 말이다. 실로 ‘문명의 진보’와 ‘동물의 고통’ 사이에 깊고도 분명한 함수관계가 있다. 인간의 ‘진보’는 동물에 대한 ‘잔인성’과 정비례한다. 그리고 21세기 말에 가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의 3분의 2가 인간에 의해 멸종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에 대한 학대는 사회적으로 합법화되고 제도화된 폭력이다.

2010년 11월 안동에서 시작한 구제역은 곧장 전국으로 확대되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우리는 도합 600만 마리의 가축들을 산 채로 묻으며 한국판 ‘아우슈비츠’를 연출했다. 자연 상태에서는 구제역에 걸린 가축의 50~90%가 스스로 치유하고 별떡 일어서는데, 우리는 갓 태어난 새끼부터 갓 출산한 어미까지 그날 한꺼번에 땅에 묻어버렸다. 하나

님께서도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 가인에게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창4:9)고 물으셨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네 동료 피조물들을 어디에다 파묻었느냐’고 물으신다.

얼마 전 동물신학과 윤리를 연구하는 영국성공회 신부이자 옥스퍼드대학교 신학부에 재직중인 린지 교수의 ‘같은 하나님의 피조물 : 동물신학의 탐구 Creatures of the Same God: Explorations in Animal Theology’를 번역하여 출간하였다. 린지는 2006년부터 ‘옥스퍼드 동물윤리센터’(Oxford Centre for Animal Ethics)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 책은 지구라는 행성 위에 우리와 함께 사는, 하지만 인간의 폭력과 학대에 시달리는 우리들의 ‘동료 피조물’인 동물의 권리와 복지와 해방에 관한 책이다.

그의 입장은 다음의 한 문장 안에 압축되어 있다. “윤리에서 내가 견지하는 이론적 입장은 약자와 상처 입기 쉬운 자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권리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앤드류 린지의 동물권 신학의 핵심인 ‘관대함의 윤리’다. 동물의 문제는 우리의 철학과 윤리와 종교의 문제다. 사람에게 인권이 있다면 동물에게도 생명체로서의 권리, 즉 동물권이 있다. 인권은 동물권으로, 동물권은 생명권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동물은 우리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료 피조물이다. 하지만 한국교회는 아직도 동물학대의 문제를 신앙의 문제, 평화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복음은 ‘인간에게만’ 복음이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뿐만 아니라 창조세계의 모든 생명, 특히 인간에 의해 오랫동안 학대받아온 동물들에게도 기쁜 소식, 평화의 소식이 되어야 한다. 아직 동물권이나 동물복지 혹은 동물해방에 대한 학계와 사회의 토론이 미약한 한국에서 뒤늦게나마 그의 책을 한국에 소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 동물에 대한 사회적이고 학술적인 담론이 아직 걸음마 단계인 우리나라에 이 책이 작게나마 기여하기를 바란다. 



연합회 소식

10월 월례기도회



10월 월례기도회가 10월 1일 오전 8시에 연합회 강당에서 열렸다.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안선희 교수가 ‘부끄러움의 미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세월호 참사를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며 기독교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마땅하다며 우리 사회를, 우리 자신을 한 없이 부끄러워하는 회원들 되기를 함께 기도했다. (자세한 내용 5쪽에)

제30차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



매주 화요일 연합회 회관 앞에서 펼쳐지는 ‘YWCA 탈핵 불의날 캠페인’은 10월 14일로 제30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맞이해 거리 음악회를 개최해 시민들과 관객들과 함께 음악을 통해 생명의 아름다움을 나누었다. 탈핵 세상의 염원을 담았다. 이천진 한양대학교교회 담임목사, 더뮤(The MU) 이민호 대표, 인디밴드 날자오농이 함께했다.

2014년 한국YWCA 정책협의회

2014년 한국YWCA 정책협의회가 2014년 9월 18일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전국 51개 회원YWCA 및 연합회에서 260여 명이 참석해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 월성1호기 폐쇄를 위한 YWCA 결의문을 발표했다. 2014년 중점운동인 탈핵운동 1년의 성과와 과제를 회원 대표들과 공유하고 2015년 YWCA의 중점과제와 정책방향을 찾는 토론을 통해 2015년을 준비했다. (자세한 내용은 8쪽부터)

삼척시 신규원전 유치 철회 주민투표

사회 각계 대표자 지지선언



교육계와 종교계, 시민사회계 인사 180명이 9월 16일 삼척시 신규원전 유치철회 주민투표를 지지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서울 중구 정동 환경재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민들의 의사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는 민주적인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삼척시 원전 신규부지 유치철회 주민투표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선언에는 차경애 한국YWCA연합회 회장, 정현백 참여연대 대표, 남부원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지영선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등이 참가했다.

일본산 수산물 수입재개 계획 중단과

일본산 폐기물 수입 금지 촉구

10개 환경 관련 시민단체 회원들이 10월 6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수산물 수입재개 계획 중단과 일본산 폐기



물 수입 금지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가 계속 누출되는 상황에서 중국, 대만, 러시아는 일본산 식품 수입을 금지·제한하고 있다며 일본 수산물 금지 조치 재검토 계획 발표한 정부에 국민 건강권을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2014년 10월 6일 JTBC 뉴스보도 동영상 주소 <http://news.jtbc.com/html/667/NB10598667.html>)

NCKK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실종자 구조를 염원하는 기도회



9월 12일 진도 팽목항에서 NCKK(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주관하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와 실종자 구조를 염원하는 기도회에 한국YWCA연합회 한영수 부회장, 서울Y 전현숙 사무총장, 목포Y 이혜경 부회장과 김은숙 사무총장이 참석했다. 팽목항에 도착해 인근을 둘러본 후 오후 2시부터 시작된 기도회에서 NCKK 세월호 참사 대책위원장 이승열 목사가 말씀을 전했다. 성만찬을 함께 나누는 후, 참가자들은 세월호 참사를 당한 희생자들과 유가족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 함께 중보기도를 드렸다. (자세한 내용은 30쪽에)

YWCA 여성주의 연구모임



YWCA 활동가(자원활동가, 실무활동가)들이 한국 사회 문제를 여성주의 시각에서 연구하고 토론함으로써, 여성주의 관점에서의 YWCA 운동방향과 과제를 모색하고자 여성주의 연구모임을 진행하고 있다. 여성과 군대, 여성과 정치, 여성과 폭력 3가지 주제로 총 6회가 진행되며, 9월 23일과 10월 7일에는 권인숙 명지대 교수를 강사로 모셔 '여성과 군대'를 주제로 진행됐다. 다음 주제인 '여성과 정치'는 10월 16일과 29일에 두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2014년 제2차 1단계 실무자교육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버들캠장에서 다양한 연령과 경력을 가진 Y 실무자 61명이 참석한 제2차 1단계 실무자교육이 열렸다. 2박 3일의 일정 동안 Y 선배들과의 만남을 통해 Y를 이해하고, Y 운동을 알아가고, Y 운동가로서 사랑과 공감, 배려와 포용 등 리더십의 요소를 갖춰나갈 길 기대했다. (자세한 내용은 26쪽에)

모금 워크숍 후속모임



2014년 모금 워크숍에 참석한 6개의 정회원Y(대전, 부산, 서울, 순천, 전주, 청주)의 후원행사 담당자 45명이 9월 26일

연합회 강당에 모여 모금 워크숍 후속모임을 가졌다. 지난 세 차례의 모금워크숍을 통해 공유된 내용들을 다시 확인하며, 모금의 관점에서 장날과 후원행사를 바라보고, 각 회원Y의 모금사업 사례들과 계획을 공유하며 회원Y 간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전국 증경회장 모임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의 일정으로 전북 상광리조트에서 2014 YWCA 전국 증경회장 모임을 가졌다. 회원Y 증경회장 1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개회예배에서는 박진구 목사(전주안디옥교회 담임목사)가 '하나님이 주목한 여인 룯과 같은 YWCA'를 주제로 강연해 큰 감동과 울림을 전했다. 새로이 회장(서울Y 이주영), 부회장(대구Y 정영애, 서천Y 조순희), 서기(여수Y 유도희), 회계(의정부Y 최동실)가 선출되었다.

2014년도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연구사업 중간보고회, 워크숍

2014년 10월 7일 연합회 강당에서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 연구사업의 중간보고회가 진행되었다. 운영위원 및 지역네트워크 담당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관계자, 연구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지난 2011년 출범 이래 올해로 3년차인 사회적기업활성화 전국네트워크에서는 그동안의 네트워크 활동 및 현황에 대한 분석과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진행 중이다. 연구 중간보고회에 이어 워크숍을 통해 2015년도 사업계획 수립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사업과 관련한 최종보고회는 2014년 12월 2일(화) 오후 1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2014 우수 사회적기업 어워

드' 시상식과 연계하여 개최될 예정이다.

2014년 전국 YWCA 돌봄노동 담당 활동가교육



2014 전국 YWCA 돌봄노동 담당 활동가교육이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버들캠장에서 개최되었다. 국무총리비서실이 후원한 본 교육은, 전국의 직업훈련, 알선 담당 활동가와 강사를 포함하여 총 50명의 참가자가 참석하여 YWCA의 돌봄운동의 가치와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교육에 참석한 활동가들은 이 사회의 돌봄운동가로서 자신의 역할과 소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4차 YWCA 돌봄정의포럼

10월 15일 광주YWCA 강당에서 제4차 YWCA 돌봄정의포럼이 '돌봄노동과 인권-가사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 문헌아 상임연구원이 가사노동과 인권을 주제로, 연합회 생명비전연구소 위원이자 송실사이버대 광지영 교수가 YWCA 회원들의 가사노동에 대한 인식과 인권으로 발제를 했고,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자세한 내용은 27쪽에)

동정

- 조창희 후원회 이사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취임
- 김재화 명예연합위원
'영미시의 정수' 출간

북부

인천YWCA

박인영 간사

탈핵 캠페인



9월 17일(수) 인천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 탈핵 캠페인을 펼쳤다. 인천Y는 탈핵을 위한 15개의 환경단체가 함께하는 '태바도인(태양과 바람의 도시)을 만드는 인천모임'에서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이번 캠페인에서는 노후한 원자력 발전소의 위험성을 알리고 노후 원전인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의 가동 중지 및 신규 원전 건설 반대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했다.

강릉YWCA

정경진 간사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교육과 캠페인



9월 30일(화) 강원도박중독예방치유센터에서 강사가 나와 청소년유해감시단 단원 대상으로 교육이 있었다. 청소년 유해환경 중독은 가족과의 갈등을 유발하고 대화 단절까지 유발시키므로 유해환경 확산 및 학교폭력, 청소년 일탈행위 증가에 대응하고,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중독예방과 테스트 등으로 교육이 이루어졌다. 이어 청소년 유해환경업소 밀집지역을 찾아 청소년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동해YWCA

김정은 간사

제10회 청소년 어울마당 '청소년! 날개를 달다!'

9월 20일(토) 오후 1시 논골담길과 등대에서 제10회 청소년 어울마당을 진행하였다. 본 어울마당은 청소년들이 과다한 학업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재능과 특기를 마음껏 뽐내며 청소년 문화를 공유하고 힐링할 수 있는 문화의 장을 만들어 Y다운 리더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한다.

춘천YWCA

이복희 본부장

어린이 환경사랑체험학교 운영



8월 23일부터 시작되었던 어린이 체험 환경 프로그램인 '어린이환경사랑체험학교'를 10월 4일(토) 수료한다. 매주 토요일 6회기 동안 진행된 이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4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였다. EM 흙공 만들기, 강화도갯벌체험, 홀로세생태학교, 양평외갓집체험마을, 강촌 로즈랑스 식용장미체험, EM비누 만들기를 진행하여 환경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경기

고양YWCA

남궁혜경 국장

역사 속에 묻힌 그녀들의 Herstory를 찾아서



9월 15일, 22일, 26일 총 3일에 걸쳐 남성 중심의 역사기술에서 묻힌

여성들의 삶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찾아내어 역사발전에 발자취를 함께 해 온 여성들의 삶을 탐방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에게는 생소한 역사 속 여성인물들이었으나 중요한 역사의 한 축을 담당했고 또한 한 시대를 앞서 나갔던 여성 인물들의 역사를 들으며 지나온 역사의 흐름 안에서 지금의 여성의 삶을 대비해보고 반추해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남양주YWCA

이정은 간사

사랑나눔 일일차집



9월 26일(금) 읍민회관 1층에서 자원봉사자 및 이사, 위원, 실무자가 참여하여 사랑나눔 일일차집 행사를 진행했다. 남양주 지역단체 및 시장, 의원 등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부천YWCA

이지원 간사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간담회



9월 30일(화) 부천시의회 세미나실에서 '부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모니터링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작년에 이어 2년째 진행된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의 후원을 받아 경기지역YWCA가 모두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이번 간담회에서는 작년과의 비교를 통해 부천시의 성별영향분석평가가 1년 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고, 올바른 정착에 대해 부천시의원, 여성청소년과 공무원, 지역 컨설턴트, 연구자, 여성단체 활동가 및 실무자들과 함께 공유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수원YWCA

정지영 간사

45주년 기념 바자회



10월 1일(수) 화관에서 '45주년 기념 및 바자회'를 개최했다. 이번 바자회는 수원YWCA 창립 45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이사와 위원, 결혼이민자, 돌보미 등 50여 명이 자원 봉사활동을 하여 더욱 뜻 깊은 행사였다. 회원 및 지역주민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종 먹거리와 의류, EM환경제품 등을 판매하여 더욱 풍성한 바자회였다.

성남YWCA

황정아 간사

Y-틴 탈핵 캠페인



9월 20일(토) 성남시 45개 청소년동아리가 참가한 제4회 청소년동아리대축제가 중원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성남Y-틴은 탈핵을 주제로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참여한 청소년들이 원자력발전과 대체에너지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에너지플러스 게임과 퀴즈를 진행하였고, 방사능과 노후 원자력발전소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알리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안산YWCA

문성은 간사

회원증모운동 발대식

10월 2일(목) 안산글로벌다문화센터 4층 강당에서 이사와 실무자, 회원 등 60여 명이 참여해 회원증모발대식을 개최했다. 회원증모와 회원운동의 방향에 대한 안산Y 박성순 회장의 강연에 이어 YWCA의 중점운동인 성인지에 대한 이해를 키우기 위한 젠더 감수성 훈련을 주제로 강시현 대표(새울림교육센터)의 특강이 있었다. 회원증모운동

은 10월 31일까지 한달간 진행되며 1인당 신규 회원을 최소 3명 이상 증모하여 회원 1,900여명을 목표로 전개할 예정이다.



안양YWCA

김희정 간사

본부 리모델링 오픈식



한국여성재단과 (주)아모레퍼시픽 복지재단이 함께하는 2014년 시설 개선사업에 선정되어 8월 25일부터 9월 12일까지 2층 본부 강의실 및 대기공간 등 여성친화공간으로 리모델링하였다. 9월 29일(월) 내빈들을 모시고 현판식 전달과 오픈식을 가졌다. 안양Y를 이용하는 회원들과 어린이들이 좀 더 쾌적하고 아름다운 공간에서 교제와 나눔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의정부YWCA

이미진 간사

불의날 탈핵 캠페인



9월 23일(화) 연합회와 함께 불의날 탈핵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의정부Y 회원 20여 명이 참여했으며 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명동에서 탈핵운동 및 호소문 낭독, 탈핵서명을 진행했다. 이날 300

여 명이 탈핵서명에 동참하였으며 탈핵이라는 딱딱하고 어려운 주제를 탈핵 운동을 통해 전달하여 시민들과 소통하는 캠페인이 되었다.

중부

대전YWCA

김지찬 간사

Y-큰장날



9월 24일(수) 오전 10시부터 저녁 8시까지 Y-큰장날을 진행했다. 건강한 생명사랑 소비자운동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Y-큰장날은 자신에게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이웃들과 나누면서 자원 재 활용을 통해 착한 소비생활, 아나바다 운동을 확산, 보급시키고, 건강한 먹을거리, 친환경 지역농산물 판매 등 다양한 물품을 저렴한 가격에 지역 주민에게 공급했다.

청주YWCA

김지현 간사

탈핵 캠페인



8월부터 12월까지 매주 화요일 11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1시간씩 탈핵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다. 시민들에게 핵의 위험성을 알리고 핵반대에 대한 탈핵서명을 받으며, 매주 봉명사거리 일대에서 실무자들이 탈핵 캠페인을 하고 있다. 탈핵 캠페인을 통해 더 많은 시민들이 핵에 대한 위험성을 깨닫고, 서명운동에 동참하기를 기대해본다.

충주YWCA | 김애영 부장

핵을 반대합니다



9월 27일(토) 현대타운 차없는 거리에서 탈핵운동을 펼쳤다. 그동안 Y-틴이 배운 노래와 율동을 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보이며 탈핵에 동참해 달라며 서명운동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이날 120여 명이 서명운동에 동참하였으며 Y-틴 회원들은 10월에도 캠페인을 계획하며, 탈핵의 중요성을 다시금 깨달았다고 소감을 나누었다.

논산YWCA | 김화선 팀장

제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

9월 23일(화) 논산시 변화가 일대에서 제차 탈핵 불의날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논산시는 연합회 지원으로 6월 18일부터 탈핵에 관심 있는 20여명의 자원지도자와 회원들 대상으로 탈핵학교를 운영하였으며, 7월 22일(화) 제19차 탈핵 캠페인에 참여하며 탈핵 운동에 불씨를 붙였다. 이 날을 시작으로 매월 1, 3주 화요일에 변화가를 중심으로 탈핵 캠페인을 전개할 예정이며, 논산 시민들이 핵의 위험성을 바로 알고 탈핵운동에 동참하길 소망한다.

세종YWCA | 홍진영 팀장

폐식용유를 이용한 비누 만들기



세종 Y-틴은 환경을 살리는 EM과 쓰고 남은 폐식용유를 이용하여 비누 만들기를 실시하였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환경을 살리는 일이

어서 만드는 내내 즐거움이 넘쳤다.

천안YWCA | 이연주 대리

베이비시터 양성교육



9월 15일(월)에서 9월 19일(금) 사이에 15명의 예비 베이비시터들과 함께 베이비시터 양성교육을 실시하였다. 20시간동안 진행된 아기돌보미 양성교육에서는 영유아의 영양과 건강, 마사지, 학습지도, 성교육과 생활안전 교육 등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생들의 높은 호응으로 전원 수료했다. 이들의 취업을 위해 천안YWCA가 적극 도움 예정이다.

서부

광주YWCA | 김해정 간사

광주YWCA대학생 소비자모니터단 발대식 및 교육

9월 16일(화)부터 9월 18일(목)까지 '대학생소비자 모니터 교육 및 발대식' 행사를 가졌다. 대학생 소비자 모니터는 지역사회에서 소비자 단체와 대학생이 연대하여 모둠별로 활동하며, 대학생 소비자의식을 고취하고 대학생 소비자 모니터단들이 압력단체로 감시자 역할을 하여 행동하는 소비자, 권리 위에서 잠자지 않는 소비자의 역량을 길러 내기 위한 프로그램이다. 소비자권익을 보호하고 대학생들로 하여금 사회기능의 담당자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남원YWCA | 박경은 간사

여성폭력방지캠페인

9월 27일(토) 남원시청소년어울림미당에서 여성폭력방지캠페인 부스를 운영하였다. '당신의 관심이 가정폭력을 멈춥니다'라는 2014 여성가족부 슬로건으로 남원경찰서와 함께 남원시민들에게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여성폭력방지 서명운동과 여성폭력관련 OX 스티커붙이기 등 다양하게 시민과 청소년들을 위한 캠페인을 진

행하였다.



전주YWCA | 김은진 부장

'청소년 행복을 말하다! 학교폭력 NO'



전주Y 청소년부에서는 9월 20일(토) 전주중앙살림광장에서 청소년들의 건강한 시민의식 및 학교 폭력 근절을 위한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청소년 행복을 말하다! 학교폭력 NO' 주제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행사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학교폭력 퍼포먼스, 길거리 캠페인 등 학교폭력예방문화를 조성하고 청소년 동아리 및 유관기관 체험부스 운영을 통해 친구와 함께하는 체험거리(우정팔찌만들기, 열쇠고리만들기), 포토존, 리서치 조사, 엽서캠페인, 청소년보호법, 학교폭력 유형에 대해 알아보기 등 청소년들이 직접 운영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목포YWCA |곽수현 부장

지역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 '해리포터미술단' 교육



은퇴자 및 고령자들의 인생 2막을 위한 지속가능한 지역평생교육활성화 학습형 일자리사업으로 '해리포터미술단'을 9월 15일(월) 개강하여 30명의 교육생이 참여한 가운데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이 교육은 무대미술 연출기법, 콜로즈업 미술 실전, 물과 불을 다루는 미술 등을 익혀 미술강사 2급자격증 취득과 수료 후 '해리포터미술단'을 조직해 지역 내 복지관, 지역아동센터, 요양원 등에서 재능기부 및 미술강사로서의 일자리 창출이 이어질 계획이다.

순천YWCA | 신현아 간사

행복한 노후, 일하는 100세! 전문조리원교육



9월 22일(월)부터 10월 14일(화)까지 순천Y 회관에서 여성직업교육의 일환으로 '전문조리원교육'이 25명 참여한 가운데 진행했다. 전문조리원 교육은 만 50세 이상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에 대해 상담, 취업의욕 및 직무능력향상 교육훈련제공, 일자리개척동아리 운영, 집중알선을 통해 재취업을 촉진하는 프로그램으로써 요리실습을 위주로 전문조리원으로 취업하도록 돕는다. 이미지메이킹, 자기소개법 등 5명의 전문강사를 통해 알찬 교육이 진행된다. 이번 직업교육의 참여자들이 순천Y를 통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

여수YWCA | 김상희 간사

학교밖청소년 자유공간 '쉬:모', 청소년 전용카페 'GENS' 개소



여수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8월 29일(금) 여수Y 회관 대강당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자유공간과 청소년 전용카페' 개소식을 진행

하였다. '2014 여성가족부-마사회 연계-학교밖 청소년 자유공간 마련 및 대안적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공모'에 선정되어 지역 청소년 누구나 마음 놓고 찾아와 자율적으로 쉬고 놀 수 있는 공간인 '쉬+미' 과 전남도내 최초로 문을 연 청소년 전용카페 'GENS'가 문을 열었다. 학교 밖 청소년 자유공간인 '쉬+미'은 학교 밖 청소년들이 편안하게 쉬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고 휴식·돌봄·상담·학업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용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하며 앞으로 학교를 그만 두는 청소년에게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배움과 취업을 계속할 수 있는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 YWCA | 장진우 간사

항공서비스 스마트하게 이용하기 캠페인



9월 26일(금) 제주시청 어울림마당 앞에서 '항공서비스 스마트하게 이용하기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번 캠페인은 저비용항공을 중심으로 항공서비스 품질 및 가격에 대한 소비자들의 개선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올바른 항공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알리고자 진행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오는 10월 23일에는 제주Y 3층 강당에서 '항공서비스 시장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서귀포 YWCA | 김수진 간사

중앙꿈쟁이도서관 개관 2주년 기념식 '우리마을 도서관 축제'



8월 28일(목) 도서관 개관 2주년 및 제3회 책문화행사 '우리마을 도서관 축제'가 개최되었다. 서귀포어린이도서관연구회의 '꼬마해녀와 물할

망' 인형극을 시작으로 지역 작가들과 주민자치위원, 지역주민들과 어린이들이 함께 참여하여 공연마당, 체험마당 그리고 나눔마당으로 진행되었다. 체험마당에는 구름빵 만들기, 파라코드 팔찌 만들기 등 체험장이 마련되었고 나눔마당에서는 베품시장을 마련하여 도서관에 책을 기증하거나 서로 교환하고,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을 판매하고 교환하는 장이 열렸다.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지역문화 소통의 장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릴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

동부

대구 YWCA | 김세형 차장

그린에너지로 꿈꾸는 그린세상 - 그린리더 양성교육



지속적인 탈핵운동을 진행한 결과 보다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맑고푸른대구21 자원순화분과실천사업으로 '그린에너지로 꿈꾸는 그린세상 - 그린리더 양성'을 개최하였다. 이번 교육은 9월 16일(화) 개강식을 시작으로 10월 28일까지 5회차로 진행된다. 이번 교육에서는 한국 핵발전의 상황에서부터 방사능이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 그린에너지에 대한 이야기, 생활 속에서 자원이 순환되는 과정 등에 대해 배운다. 또한 대성환경에너지 방천매립장과 상리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정보관 관람으로 우리가 버리는 생활폐기물이 천연가스가 되는 과정을 살펴볼 예정이다. 대구는 앞으로 신재생 에너지의 자원순환에너지교육으로 환경보존에 대한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부산 YWCA | 하경량 간사

탈핵강사 양성 심화과정

탈핵강사 양성교육 이수자를 대상으로 9월 3일(수) 심화과정 워크숍이 부산YWCA 2층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월드카페, 리빙 라이브러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대상에 맞추어 재미있게 탈핵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교수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다. 이어서, 연례별 탈핵교육 교안을 공유함으로 학습내용을 익혔다. 다양한 곳에서 탈핵교육



을 펼침으로 많은 시민에게 탈핵의 필요성을 일깨움으로 탈핵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울산 YWCA | 김선양 팀장

DMZ 평화행진 '이제는 우리가 만나야 한다'



8월 21일(목)부터 22일(금)까지 강원도 철원 및 소이산으로 DMZ 평화행진을 다녀왔다. 평화행진은 1부 평화소망나누기, 평화선언문, 평화의사와 노래부르기, 2부 평화비행기 날리기, 평화리본 달기로 진행되었으며, 정전의 아픔을 간직하지 60년이 지난 지금 한반도 내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포항 YWCA | 황혜민 간사

장금을 찾아라



9월 17일(수) 포항Y 조리실에서 지역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포항YWCA 결혼이민여성 자국요리경연대회'를 열었다. 세계 각국의 음식을 통해 한국과 이민국간의 문화 교류의 장을 마련하고 결혼이민

여성들이 사회문화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으로 대회가 열렸다. 특히 이번 대회는 친정 어머니와 함께 참여한 팀이 있어 음식을 통해 고국에 대한 그리움을 달랠 수 있는 더욱 뜻 깊은 시간이었다. 올해 요리경연대회에서는 베트남 출신 김해우씨가 대상을 차지했다.

안동 YWCA | 강주영 간사

출산장려·육아교실



9월 15일(월) 안동성소병원의 후원으로 무료 '출산장려·육아교실'을 개강하였다. 매주 월요일 2시간씩 진행될 예정으로 전문가를 초청해 육아에 필요한 특강과 유아용품 만들기, 아기와 함께하는 놀이교실로 진행되고 있어 지역민의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도움이 될 것이다.

거제 YWCA | 김의향 부장

수명 끝난 핵발전소 폐쇄하라!



9월 30일(화) 디큐브백화점 앞에서 '탈핵 불의 날 캠페인'을 가졌다. 이날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위험성을 시민들에게 설명하고 변변한 안전 대책 없이 '우리 원전은 안전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침묵하는 배의 승객에게 '선실에 기만히 있으라'고 하는 것과 같으며 하루빨리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 1호기 수명 연장 운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고리 1호기, 월성 1호기 가동 중지 및 신규 핵발전소 건설 반대 및 서명운동을 하였다.

마산YWCA | **이애라 부장**

씽크머니 데이 페스티벌



9월 24일(수) 창원 삼계초등학교는 마산YWCA와 같이하는 '청소년 씽크머니(Think money)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가졌다. 창업진흥원 지정 청소년 비즈쿨(BizCool, 비즈니스+스쿨)을 운영하는 삼계초는 이번 체험중심의 창의적 경제 금융교육 '씽크머니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배려와 나눔, 소통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창원시 마산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다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운영했다. 다문화 체험 부스는 여러 나라의 화폐를 모의로 제작해 학생들에게 제공, 값을 치르고 체험에 참가하도록 했다.

사천YWCA | **정희경 간사**

즐거운 추석! 한국 며느리 따라잡기



사천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9월 3일(수) 초기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추석 차례상 차리기 행사를 열었다. 추석을 맞아 결혼이민여성들이 추석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문화 차이로 인한 명절 스트레스를 완화하여 가족 및 친지들과 즐거운 명절을 보내도록 돕고자 하는 취지로 마련되었다.

양산YWCA | **박경하 간사**

노인소비자 교육을 '소비자 피해사례 상황극'으로

9월 15일, 19일, 25일 지역 내 노인회관, 노인복지관, 노인대학 등을 순회하면서 노인소비자 교육을 진행했다. '공짜 휴대폰 판매' 소비자 피해 사례와 '건강보조식품 판매' 소비자 피해사례를 상황극 공연을 통하여 보이스피싱(전화사기)수법 등을 재연하였다. 이번 교육은 소비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부족으로 피해가 점점 증가하는 노인소비자를 대



상으로 합리적인 소비행위에 대한 사례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양산Y는 앞으로도 이런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갈수록 교묘해져 가는 부적절한 판매행위에 피해를 입지 않고 건전한 소비생활을 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진주YWCA | **류지혜 간사**

생명살림 초록교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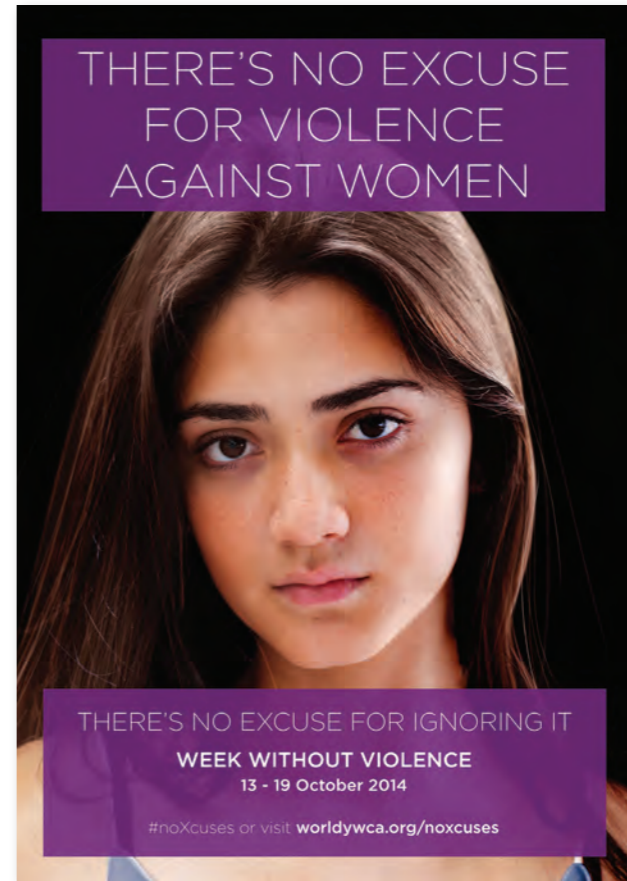
진주YWCA와 개양중학교는 지역의 미래 주역인 청소년들에게 지역의 환경의기를 알리고 관심을 유도하고 범시민적 환경의식을 고취하고자 공동 협약서를 작성하고, 기후변화의 이해, 환경 생태와 기후변화, 아나바다 장터, 환경사랑 골든벨, 사진몬테스트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개양중학교 1학년 학생들을 만날 예정이다. 9월 24일(수) 첫 수업에서는 기후변화의 이해라는 주제로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 에너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아 가정 에너지 절약의 중요성을 알리는 시간을 가졌으며 9월부터 11월까지(6회기) 진행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진주시가 후원하고 푸른진주시민위원회가 주최하고 진주YWCA가 주관한다.

창원YWCA | **정미영 간사**

대학생과 함께하는 성인지 감수성, 알기! 느끼기! 행동하기



창원대학교 가족복지학과와 함께 성인지 캠페인과 특강을 진행했다. 성인지에 대한 지역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대학생들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해 준비된 이번 행사는 '성인지 감수성, 알기! 느끼기! 행동하기'라는 주제로 창원대학교 봉림관 앞에서 9월 30일(화)부터 3일 동안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대학생들의 성인지에 대한 생각과 태도, 성평등 실천의향에 대해 알 수 있었다.



#NoExcuses
여성폭력, 어떤 이유로도 안돼!

“여성폭력에 대한 어떤 변명도, 여성폭력을 허용하는 것에 대한 어떤 변명도 더 이상은 없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35%의 여성이 배우자의 폭력 또는 배우자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여성폭력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캠페인의 슬로건 **#NoExcuses**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른 사람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시킬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가정 폭력, 사회적·경제적 차별, 아동 강제 조혼, 여성할례 등 여성폭력으로 인한 고통을 겪고 있는 세계 곳곳의 여성들이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십시오.

더 많은 내용을 보시려면 <http://www.worldywca.org> 또는 <http://www.worldywca.org/noexcuses>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YWCA 비폭력 주간은 매년 10월 셋째 주에 열리는 세계적인 캠페인입니다. 이 캠페인은 모든 형태의 폭력을 비난하고, 지역 사회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돕도록 사람들을 참여시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세계YWCA는 이 비폭력 주간에 모든 형태의 폭력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전세계 YWCA회원들에게 참여를 요청합니다.